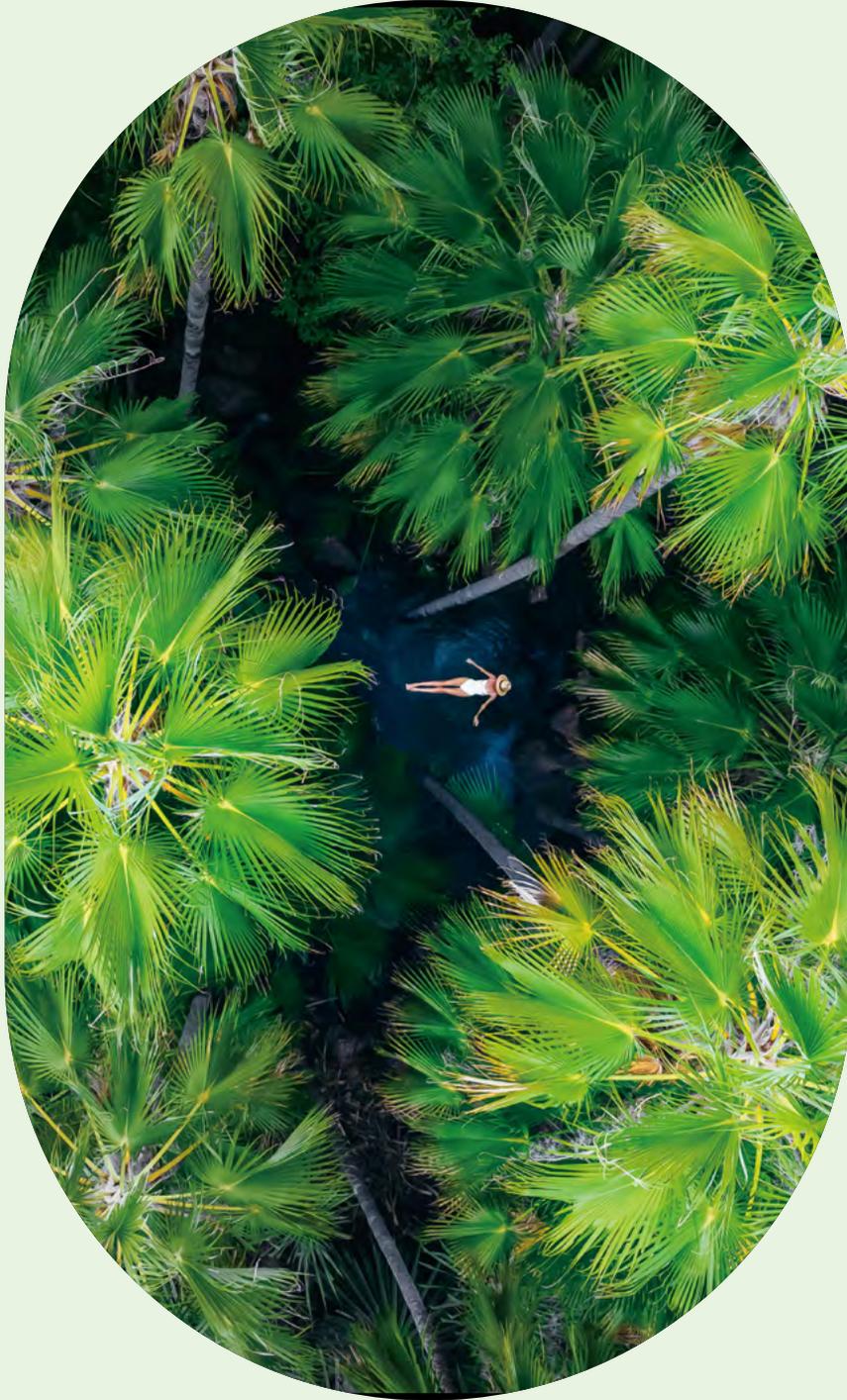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 TWO CHAIRS

MARCH+APRIL



2025 vol.71

---

**SPECIAL THEME** 1.5°C: A Turning Point **LIFE &** 광활한 자연을 마주하다, The Ultimate Australian Tour  
**SENIOR &** 천년 가람으로, 나를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나는 봄 **WEALTH &** 서남권 최초 특화 지점 TWO CHAIRS W 여의도

# 아시아뱅크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WEALTH & SOCIETY 2024

BEST PRIVATE BANK IN SOUTH KOREA



March and April

## Here Comes the Spring

〈TWO CHAIRS〉 3+4월호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야기되고 있는  
기후 환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환경 문제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에코 기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매해 세계경제 지도를 바꾸는 2025 CES의 핵심 내용과  
독특하고 실용적인 건축물로 도시에 활기를 더하는 건축 사무소도 소개합니다.

남들과 다른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호주를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의 취향에 맞춰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와 스테이도 담았습니다.  
울봄,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마음도 더욱 따뜻해지는 봄이길 바랍니다.

# CONTENTS

MARCH+APRIL  
2025 vol.71



## 05 Special Theme

### 06 INTRO

1.5°C Generation

### 08 REPORT

2100 Change Map

### 14 VIEW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법  
기후테크의 최첨단

### 18 TIP

탄소 발자국을 줄여라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10



## 23 Life &

### 24 TRAVEL

발칸반도의 빛나는 보석  
크로아티아 트로기르

### 32 EXHIBITION

미국으로 건너간 모네의 빛

### 38 ARCHITECT

기능적이면서 아름다운 건축은 이런 것  
그림쇼 건축설계사무소

### 44 PLACE

On the Special Night

### 50 SCENE

광활한 자연을 마주하다  
Experience the Luxury:  
The Ultimate Australian Tour

### 54 ISSUE

CES 2025로 보는 미래 예고편

### 60 CLASSIC STORY

2025 상반기 주목할 만한 클래식 공연



## 63 Senior &

### 64 LOCAL TOUR

천년 가람으로,  
나를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나는 봄

### 70 READING

읽는 기쁨과 보는 기쁨

### 72 SIGNATURE HOLE

라비에벨 골프앤리조트

### 76 GOLF LESSON

오진동 프로의 윈 포인트 레슨

### 80 RECIPE

스타 셰프의 홈메이드 레시피  
Edward Lee's Style

### 84 BEAUTY

피부 노화 시계를 늦추는  
슬로에이징의 조력자

### 88 HEALTH

건강한 장으로 만성질환을  
극복하다



## 93 Wealth &

### 94 MEET

드디어 서남권 최초 특화 지점  
TWO CHAIRS W 여의도

### 100 INVESTMENT

마·중 관세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른  
한국 경제의 앞날은?

### 104 REAL ESTATE

레고와 부동산,  
모듈러 건축 시대의 도래

### 108 TAX STORY

자녀와 부동산 거래,  
시세보다 낮게 해도 괜찮을까?

### 112 READERS LETTER

#### QR코드 아이콘 가이드

유튜브 등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행 및 편집인 하영춘

발행처 한국경제매거진(주)

발행일 2025년 3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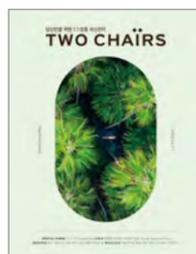
2025년 3·4월호 제10권 제2호(통권 제71호)

디자인·인쇄 한국경제매거진(주)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경제매거진(주)이 우리은행 PB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COVER STORY

야생 그대로의 모습이 살아있는  
서호주 킴벌리에 위치한 엘 퀘스트로 야생공원 내  
제베디 스프링스(Zebedee Springs).  
매일 오후 홈스테드 숙박객에게만 개방되는 곳으로  
투명하게 맑은 물을 자랑한다.





- 우리금융을 한 곳에 모아 WON MORE
- AI 기술로 WON MORE
- 나 중심 서비스로 WON MORE

더 새로워진 금융생활을 위해  
우리WON은

# WON MORE



※ 우리WON뱅킹 앱은 사용자의 AOS/OS 버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우리WON뱅킹 앱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8-5000, 평일 09-18시, 주말/공휴일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074(2025.02.07~2026.02.13)



# SPECIAL



## 1.5°C: A Turning Point

지구 온도 1.5°C 변화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예고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을 넘은 우리는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 곳곳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달라지는  
라이프스타일을 알아봅니다.

# 1.5°C

기후변화 마지노선인 1.5°C라는 경계를 사는 시대, 이 시대를 이해할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기상청  
Reference: 경기연구원, 환경부

# GENE

## COP

지금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 세계 189개국이 당사국으로 포함되어 있다. COP 뒤에 붙는 숫자는 회차를 의미. 가장 최근인 2024년 11월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COP29'라 표기한다.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탈퇴해 논란이 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열린 COP21 참석국이 체결한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약이다. 궁극적으로 기온 상승분을 1.5°C까지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5°C

지구온난화 임계값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 1.5°C는 2015년 제21차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이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기온 상승 폭이 1.5°C를 넘어간다면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질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4년은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C 올랐다고 본 것. 다행히 WMO는 이런 온도 급상승이 아직까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COP21에서 세운 목표는 장기 추세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지난 해만 가지고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 요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아주 조금은 말이다.

## 1.6°C

지난 109년간 대한민국 연평균 기온 상승 폭

우리가 기후 위기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 워든 빠른 대한민국은 온난화 속도도 LTE급이라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다. 지난 1912~2020년간 대한민국 연평균 기온은 약 1.6°C 상승했다. 전 세계 평균은 1.09°C.



## 기후플레이션 Climateflation

기후변화+인플레이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의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

# RATION

## 인류세 Anthropocene

인류가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지질시대

요즘 기후변화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지구 오존층을 연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 파울 크뤼천(Paul Crutzen)이 2000년대 초 처음 사용해 요즘 자주 쓰인다. 대규모 탄소 배출, 숲 벌채, 해양오염 등 오직 인간으로 인한 행동이 지구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으니, 지질학적으로 이 시기를 설명할 단어가 따로 필요해 사용된다.

## 기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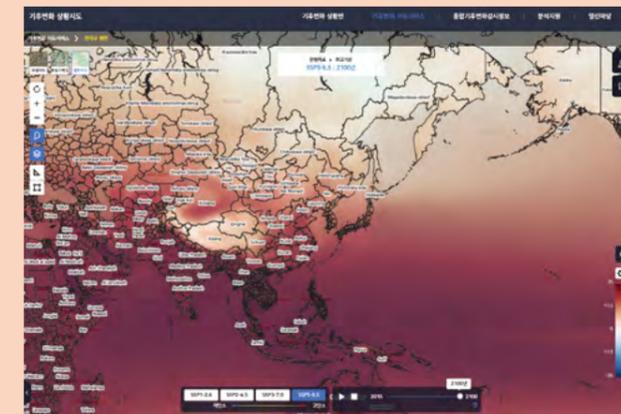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

이젠 소득만이 아닌 기후로 국가, 계층, 지역, 세대 간 불평등도 생긴다. 바로 '기후 격차'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기초지자체 중 소득 상위 10%를 차지하는 3개 지역의 탄소 배출량이 하위 약 60%를 차지하는 19개 지자체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발표했다. 또 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계층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34톤으로,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배출량 2.84톤보다 월등히 높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기를 먹고, 스키 등을 즐기러 레저 여행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따로 있는데, 피해는 다른 곳에서 보는 셈이다.

## 기후변화 상황지도

이젠 기후변화도 수시로 체크

기온,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어떤지도 확인해야 하는 시대다.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내가 사는 곳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현재의 기후 데이터와 미래 관측까지 한눈에 보여준다. [www.climate.go.kr/atlas](http://www.climate.go.kr/atlas)



## 12억 명

2050년 기후 난민의 수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해 살 곳을 잃고 떠도는 기후 난민의 수가 12억 명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

# 2100 Change Map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지금 이 파괴 속도라면 적어도 80년 안에 사라질지 모르는, 한 세기를 넘기기 힘든 현재의 풍경들.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산림청, 순천시, 한경DB

Reference: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그린피스, 농촌진흥청, 포츠담 기후 영향연구소, 한국환경연구원, 행정안전부



## 1

### 제주 한라산구상나무숲

지구 온도가 오르며 추운 곳에 사는 북방계 식물의 생육지는 사라지고, 남방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역은 점차 확장된다. 국립산림과학

원이 1990년대 이후 20년간 고산 지역 침엽수림 면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1만 8000헥타르에서 25%에 달하는 4500헥타르의 숲이 감소했다.

이런 소멸 속도가 특히 가파른 곳은 제주도 한라산.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은 국내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변화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산다. 한라산뿐 아니라 지리산·덕유산·속리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만 사는 구상나무는 지구 기온이 낮았던 빙하기에는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다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오르자 산꼭대기로 피신해 남은, 빙하기의 흔적이다. 한라산 꼭대기의 구상나무 숲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구상나무 숲으로, 유일무이하다. 그러나 이 숲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파악에 따르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지난 20여 년간 39%가량 사라졌다.

국내 산림의 구조도 변하고 있다. 2015년 국내 산림 중 38%를 차지하던 침엽수림은 2055년엔 28.6%로 줄어든다. 침엽수림이 사라진 자리엔 34.2%이던 활엽수림(35.2%), 27.7%이던 혼효림(36.2%)이 자란다.



## 2

### 순천만 갯벌 습지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 7,000마리가 찾아오는 유례없는 국내 절경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순천만 갯벌 습지도 위태롭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못하는 고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2100년 국내 해안선은 최대 82cm 상승할 것이라 발표했다. 한국환경연구원<sup>KEI</sup>은 2100년 최대 1.33~1.68m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침수 면적은 국토의 4.1%에 달한다. KEI의 수치를 반영하면 순천만 갯벌 습지의 약 47.6%가 사라진다.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 갯벌 습지는 순천·고흥·여수 3개 도시로 둘러싸인 22.6km<sup>2</sup>의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다행히 순천시는 순천만의 가치를 잘 이해해 이를 지키고자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특히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동천 하구 내 농경지를 매입했다. 이를 도시 차원에서 습지로 복원해 보호하기 위해서다.

습지는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다. 습지는 대기 중으로 탄소 유입을 차단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량을 조절하고, 대기 온도와 습도 등 기후를 조절하는 능력까지 지닌 독특하고 소중한 유기체다. 여름엔 온도를 식혀 주고, 겨울엔 온도를 보존해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작은 생태계이기도 하다.

3

### 경북 사과밭

우리에게 친숙한 대표 과일, 사과가 사라지고 있다.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1%를 담당하는 사과의 주산지 경북 지역에서 사과밭 면적은 30년간 44%나 줄었다. 기후변화로 더워지며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한반도 과일 재배지 미래 전망 자료를 보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지구온난화가 이어질 경우 20여 년 뒤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가 사라진다. 2070년대에는 강원도에서도 극히 일부에서만 재배 가능해지며, 210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 적지가



완전히 없어진다. 사과는 7℃ 이하의 온도에서 1200~1500시간을 보내는 '성숙기'가 필요하다. 이 성숙기가 고온이라면 품질이 나빠진다. 다른 대표 과일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배, 복숭아 등도 2090년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해진다.

4

### 부산 해운대 사빈해안

해수면 상승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영향 요소다. 태풍, 고조, 지진 등 다른 재해를 동반할 수 있어 위험도도 높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낮은 지대의 땅, 해안, 사구 등이 사라진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가장 대표적 피해는 바로 사빈해안 침식. 바다와 땅이 맞닿은 부분에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있는 해안을 사빈해안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곳은 부산 해운대, 남해 상주, 해남 송호리다. KEI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100년이면 해운대 모래사장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KEI는 우리나라 해안이 특히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전국에 있는 사빈해안은 110여 개.



만약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면 이들 중 80%가 손상된다. 최대 남해안은 87.3%, 서해안은 86.4%, 동해안은 69.9%가량 손실될 것으로 봤다.



5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수면 상승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빙하와 빙상이 녹아 바닷물의 양이 늘기 때문이다. 전 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치도 매해 경신 중이다. 유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6차 보고서는 현재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금세기 말에 해수면이 1.1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정도만 상승해도 미국의 뉴욕·뉴올리언스, 중국의 상하이, 인도 뭍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세계적인 대도시가 사라진다. 그중에서도 상승의 위험이 가장 먼저 닥치는 곳은 바로 섬나라다. 바닷물이 범람해 저지대가 침수되고 지하수엔 염분이 스며 마실 수 없게 된다. 당연히 농작물 수확도 어려워진다.

생명이 살기 힘든 곳이 되는 것이다. 섬나라 수도인 자카르타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유다.

세계기상기구(WMO)의 관측에 따르면 1만 7,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해수면은 상승하고, 지하수를 계속 뽑아 써 지반은 내려앉고 있다. 2100년이면 해안 도시 대부분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1,1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수도 자카르타는 연평균 5~10cm씩 가라앉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자카르타 북부의 지반은 3~4m 내려앉았다. 성인 두 사람의 키만큼 물속으로 가라앉은 셈이다. 이 속도라면 2050년엔 도시의 3분의 1 이상 물에 잠긴다. 그래서 부랴부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다. 2022년부터 보르네오섬 동부 인근에 새로운 계획 수도인 '누산타라'를 개발 중이다. 본래 2024년 수도로 천도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건설 중이라 미뤄졌다.



6

몽골 고비사막

고비사막은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더 넓어지고, 사막 주변의 아름답던 목초지와 호수 등 우리가 기억하는 고비사막의 조화로운 풍경은 사라진다.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1940년부터 2015년까지 몽골의 평균기온은 2.24℃ 올랐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을 초과한다. 여름철 몽골은 더 뜨거워지고 더 건조해졌다.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대표적 관광지인 고비사막이다. 이상 기온으로 몽골의 강과 호수 흐름이 감소해 고비사막을 포함한

몽골 내 건조 지역의 사막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숲과 호수는 사라지고 모래언덕이 더 넓어지고 있어, 고비사막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판이다. 고비 지역의 울란 호수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랐으며, 당연히 호수 주변으로 동식물을 키우며 살던 사람들도 사라졌다. 초원은 모래밭이 되고, 점차 영역을 넓혀 침범하는 모래를 피해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변화의 영향은 몽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일어난 황사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데, 사막화가 심해지면 미세먼지 또한 심각해진다. 영화 <매드 맥스> 속 세상이 어찌면 먼 미래가 아닐 지도 모른다.

7

히말라야 빙하

미 항공우주국<sup>NASA</sup>은 지난 2월 남극 해빙의 범위가 1979년 위성 관측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빙하가 녹고 있다. 남극만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구 곳곳의 더 작은 빙하가 녹고 있고, 알프스 정상의 만년설 풍경도 바뀌었다. 아이슬란드 서부에 있던 빙하 오크외쿨은 2014년 녹아 없어졌다. 일부 기후학자와 지역 전문가가 빙하 장례식을 치렀고, 그 자리에 묘비 같은 명패를 세웠다. 해빙의 시대다. 우리와 가까운 곳의 사정은 어떨까. 히말라야는 남극과 북극 다음으로 얼음과 눈이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고산지대 빙하가 2100년이면 최대 80%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됐다. 네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sup>ICIMOD</sup>

연구진이 히말라야 빙하는 2011~2020년간 이전 10년보다 65% 더 빨리 녹았고, 온난화가 지금처럼 진행되면 2100년에는 현재 빙하의 80%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도 약 100년 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빙하로 빙폭 길이만 700여 m에 달하는 쿼부 빙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게재했다.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지면 인도, 네팔, 부탄 등은 주요 수원을 잃어 농업은 물론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또 있다. 빙하가 녹아서 남기는 것이 물뿐만 아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빙하 안에 온실가스인 메탄이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얼마 전엔 히말라야 빙하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1,700여 종을 발견하기도 했다. 어떤 변화와 위험이 닥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만 선명해지고 있다. ●





##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법 기후테크의 최첨단



기후 위기는 자연스럽게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 위기에 '기술'로 맞서는 새로운 영역, '기후테크'에 출사표를 던지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 기술이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질 것인지, 진짜 목표에 부합할 것인지는 가는 눈을 뜨고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Writer: 유나리 Photo: 각 사, 환경DB Reference: 해양수산부, IEEE

2024년 세계경제포럼<sup>WEF</sup>은 '기상이변'이 향후 10년 내 직면할 인류 최대의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 과감한 결단이란, 기존 문명 질서를 이끈 탄소 위주의 시대와 이별하는 것이다. 지구 이상을 이끄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재활용도 되지 않는 쓰레기를 원료 삼아 발전하는 화석연료 기반 문명을 친환경 그린 인프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이끌 핵심은 '기후테크'다.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기후테크'는 탄소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이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의미한다. 기후테크는 크게 전기차나 배터리 제조 등의 친환경 교통 분야, 지열이나 핵에너지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분야,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카본 기술 분야, 쓰레기 등 자원 순환을 연구하는 에코 분야, 대체 식품을 개발하는 푸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과 시대적 필요성에 힘입어 기후테크는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신개척 영역이 많은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와 연구 개발 능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기후테크 시장 선두에서 있다. 친환경 마켓 전문 리서치 업체 '사이트라인 클라이밋 Sighthline Climate'은 2024년 전 세계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투자가 총 300억 달러(43조6,05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도 기후테크 발전을 위해 총 2조7,4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진화

사이트라인 클라이밋이 발표한 2024년 전 세계 기후테크 스타트업 벤처 투자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에너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전년보다 12% 증가한 94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지열, 핵에너지 관련 투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이색적인 기술도 가장 활발하게 나온다. 미국전기전자공학자협회<sup>IEEE</sup>가 발행하는 <IEEE 스펙트럼 IEEE Spectrum>이 꼽은 '2024년 주목할 기후테크 기술 톱 10'에 소개된 신기술의 면모는 놀라울 정도다. 네덜란드의 스타트업 카이트파워 Kitepower는 이름에서 유추할



카이트파워의 '더 호크'. 연은 최대 시속 110km로 움직이며, 풍력발전기 풍차 높이인 100m보다 높은 350m까지 올라갈 수 있어 더 센 풍력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수 있듯, 연으로 전기를 만든다. 최대 350m 높이에서 부는 강력한 바람이 연의 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전기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작년에 카이트파워는 40kW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변환 시스템을 발표했다. 일명 '더 호크 The Hawk'. 연인 '호크'가 날아오르면 연에 묶인 줄이 당겨지며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크기의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거대한 풍차나 태양광 패널보다 설치 면적이 좁고 환경에 덜 구애받아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흙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도 나왔다. 미국 테네시 공대 연구진이 지하 송신기와 수신기를 발에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데 성공한 것. 농업용 토양은 비료에서 나온 이온이 풍부해 전기 전도성이 높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 효용성 갖춘 탄소 포집 기술의 탄생

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sup>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sup>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중 하나로, 발전소나 공장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압축·수송해 지하 깊은 곳에 묻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에너지부<sup>DoE</sup>는 거대한 팬<sup>Fan</sup>을 이용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1



2



3

만 빨아들이는 직접공기포집DAC 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 거대한 선풍기는 주변 공기를 빨아들인 뒤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만 분리, 지하에 묻거나 콘크리트 제조 등에 쓴다. 이 선풍기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산화탄소와 잘 결합하는 아민 성분의 흡착제를 바른 대형 필터. 태양열 에너지로 움직이는 이 거대 선풍기는 미국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시설로 매년 최대 3,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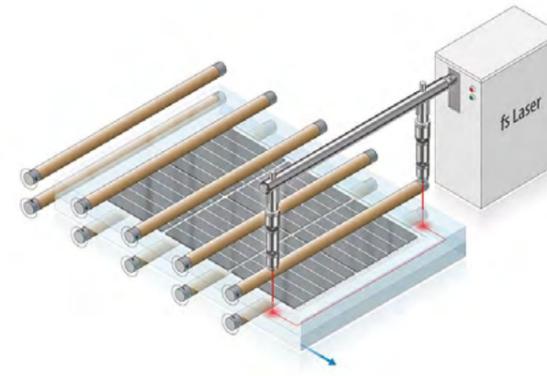
직접공기포집 기술의 선두 주자인 스위스의 클라임웍스 Climeworks도 새로운 흡착제로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거대한 큐브 시설을 내놨다. 기존보다 포집 효율은 2배, 수명은 3배 연장한 기술이다. 클라임웍스는 이미 2024년 아이슬란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직접공기포집 및 저장 공장인 매머드 Mammoth를 가동했다. 이 공장은 연간 3만6,000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 이는 연간 7800대의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미국 스타트업 캡처라 Captura는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혁신적인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전기투석 방식으로 산성화한 후, 이를 다시 바닷물과 혼합해 이산화탄소를 분리·추출한다. 캡처라는 지난 2월 하와이 코나에 매년 1,000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발전소를 가동했다.

### 되살리고 또 되살려라, 에코 기술

친환경을 위해 개발한 기술도 쓰레기를 만든다. 화석연료를 덜 쓰기 위해 태양전지를 개발했지만, 이들도 영구적이지 않다. 게다가 태양전지엔 실리콘, 은, 구리 등 비싸고 추출하기 힘든 원료도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 아까운 것들을 지금까지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그나마 최대 90%만 살릴 수 있었다. 그 과정도 비싸고 유해 물질이 사용됐다. 올해 수명을 다한 태양전지 수백만 톤이 버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스타트업 9-테크 9-Tech는 독성 물질 없이 분리, 재활용하는 방법을 내놨다. 패널에서 알루

- 1. 아이슬란드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직접공기포집 및 저장 공장인 매머드
- 2. 클라임웍스가 선보인 차세대 포집 시설. 큐브 형태로 제작된다.
- 3. 캡처라가 올 2월 가동을 시작한 하와이의 탄소 포집 시설.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가 고안한 펄토초 레이저를 활용한 태양전지 용접 기술

미늄 골격과 강화유리를 제거한 나머지를 400℃ 용광로에 넣어 녹지 않는 유리, 실리콘, 구리 등을 분리한다. 그래도 실리콘에 남은 은은 초음파와 산으로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 공정으로 은 90%, 실리콘 95%, 구리와 알루미늄, 유리는 99%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전지 패널의 수명을 늘릴 방법도 나왔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NREL 연구진이 패널을 만들 때 끈끈하게 남아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접착성 고분자 대신 펄토초 레이저로 용접하는 기술을 고안했다. 이런 용접법은 부식의 우려가 줄어들어 태양전지 패널 수명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 먹거리에 혁신을, 급성장 중인 푸드테크

지구를 구하는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이 바로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식물성 식품, 대체육 제품은 비행기·기차·선박·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진 축산업을 대체할 좋은, 또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는 육류 비중을 줄이고, 식물성 식품 섭취를 늘리면 기후변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할 정도다. 대체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고기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물성 식품은 공장식 축산업 등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신세계푸드의 대체육 '베리미트'로 만든 샌드위치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변화는 확연하다. CJ제일제당은 대체 식품군을 선보이는 비건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2021년 론칭하며 식물성 조직의 단백질을 개발하고 배양육 기업에 투자도 한다. 신세계푸드 또한 대체육 전문 브랜드 '베리미트'를 론칭했고, 농심도 독자 개발한 고수분 대체육 제조 기술로 소고기·닭고기·참치 등의 맛을 재현한 비건 브랜드 '베지가든'을 출시했다.

대기업이 대중화를 이끈다면 스타트업은 기술 첨병에서 있다. 모양부터 맛과 식감까지 실제 달걀과 흡사한 식물성 달걀을 만드는 '메타텍스처', 버섯과 콩으로 친환경 대체육을 만드는 '위미트' 등이 대표적. 지난 1월 막을 내린 CES 2025에서 혁신상을 받은 3D 프린팅 대체육 기업인 슈팸은 이화여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창업한 국내 스타트업. 슈팸은 3D 프린터로 최고급 소고기라 불리는 와규의 마블링을 패턴화해 재현한다. 앞으로 고기 구울 때 나는 향까지 담을 것이라고.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해조류나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와 흡사하게 만드는 대체 해조육, 수산 배양육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10개 연구 기관은 미역이나 다시마를 활용한 어묵·소시지, 참다랑어나 랍스터 세포를 배양한 밀키트 개발, 능성어와 대하 세포를 배양한 구이용 생선 제품 개발에 나선다. ●

탄소 발자국을 줄여라

#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10

우리가 한 해에 배출하는 탄소량만 평균 14톤이 넘는다. 인간의 삶 자체가 탄소 배출이다.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 모두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식탁 위를 바꾸고 대기 전력 스위치 한번 누르는 것부터, 일상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방법은 꽤 많다.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언스플래시, 한경DB Reference: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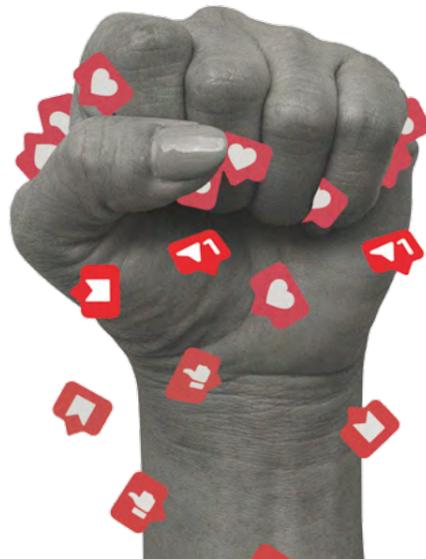
## 1 음식 남기지 않기

유엔환경계획<sup>UNEP</su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가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다. UNEP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에서 낭비된 식량은 10억5,000만 톤. 한 명당 132kg을 남긴 셈이다. 이는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이 낭비된 식량 중 60%가량은 가정에서 생긴다. 집에서 먹을 만큼만 해 먹고 남기지 않아도 지구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다. 유럽연합<sup>EU</sup>도 저탄소 식습관 중 하나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기', '너무 많은 양을 주문하지 않고 적당량만 주문하기', '버리는 식자재 줄이기' 등을 제안했다.

## 2 Stop SNS

오늘 하루 유튜브를 1시간 동안 봤다면, 당신은 이미 6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거기에 하는 일 없이 인터넷을 떠돌았다면 10분당 0.2g의 탄소를 배출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환경까지 해치는 셈이다. 일부러 일정 기간 미디어 기기와 온라인 기기 사용을 끊는 미디어 디톡스<sup>Detox</sup>도 하는 시대니, 이참에 환경까지 고려해 사용 시간을 적당히 조정하고 탄소 배출도 줄이자.

**TIP** 화면은 '절전 모드'로, 밝기는 '낮게', 동영상은 스트리밍 대신 직접 내려받아 시청하기.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탄소 발자국을 덜 남길 수 있다.



## 3 메일 지우고 앱 추적 금지하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사실. 이를 '디지털 탄소 발자국<sup>Carbon Footprint</sup>'이라 부른다. 기기 충전, 인터넷 사용, 데이터 소비, 대기 전력 사용 등 기기를 켜는 그 순간부터 탄소가 발생한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메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보관하고 있던 불필요한 메일, 스팸 메일함, 휴지통만 비워도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를 서버에 보관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방대한 탄소를 배출한다. 또 인터넷을 사용할 때 기기에서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추적 보호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시간으로 개인 데이터를 추적, 저장하면 그만큼 기기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TIP** 메일을 그냥 휴지통에만 넣으면 안 되고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또 추적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 '개인 정보 보호' 메뉴에서 '개인 데이터 수집' 해제나 '앱 추적 금지' 등을 요청하면 된다.



## 4 동물성 식품 섭취 빈도 줄이기

지구를 위해선 완전 채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완전 채식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육식 횟수를 줄일 수는 있다. 단순히 고기만 덜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 생선, 달걀, 치즈, 유제품 등 '동물 기반 식품'을 줄이면 된다. 이렇게 동물에서 나온 식품을 먹기 위해서는 사료를 먹여 가축을 길러야 하는데, 동물에게서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하루에 100g 이상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에 이산화탄소를 10.24kg 배출하고, 고기는 안 먹고 생선만 먹으면 4.74kg, 우유나 달걀도 먹지 않는 비건은 2.47kg에 불과했다고.

**TIP** 고기를 먹을 때 돼지고기·소고기 등의 '붉은 고기' 대신 닭이나 생선 같은 '흰 살 고기'를 택하면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 소고기는 68kg, 돼지 4.5kg, 닭은 3.1kg의 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배출량 차이가 꽤 크다.



## 5 무농약의 유기농 채소나 과일 먹기

단순히 유기농이 몸에 더 좋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기농이 지구에도 더 좋다. 비료 역시 주요 탄소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축 분뇨와 합성 비료로 연 26억 톤의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한다. 이는 세계 항공·해운 업계의 배출량보다 많은 양이다.

**TIP** 저탄소 농산물 인증 마크 확인하기.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농약이나 유기농, GAP 인증을 받아 생산과정에서 평균 배출량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 이를 인증해주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 6 소비 줄이기

지금 시대엔 착한 소비란 없다. 그저 현명하게 덜 소비하는 것이 환경을 위한 최선이다. 친환경 생활을 한다고 갑자기 새 텀블러를 사고, 에코 백을 사는 건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의미다. 가능한 한 소비를 덜 하고, 지금 있는 것을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쓰자. 만약 꼭 사야 한다면 현명하게 사자. 생필품을 살 때는 비누처럼 닳아 없어지는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좋고, 이게 어렵다면 플라스틱 완제품을 또 사는 대신 리필을, 리필 용기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고르자.

특히 옷 쇼핑도 줄여야 한다. 옷도 탄소를 발생한다. 옷장 속에 박혀 있는 옷을 탄소를 환산하면 개인 옷장도 거대한 탄소 배출 덩어리다. 가진 옷을 입고, 꼭 필요한 옷이 아니라면 덜 사는 것도 아주 좋은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이다. 특히 재킷이나 코트, 드레스, 청바지 등은 다른 의류 품목보다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옷을 중고로 사거나 돌려 입는 것도 좋다.

## 8 세탁기 돌리는 횟수 -1

우리나라의 평균 세탁기 사용 횟수는 주 4회. 이틀에 한 번 꼴로 돌리는 셈이다. 이는 좋은 습관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세탁물을 소량 모아 자주 빨래하는 것보다 세탁기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 빨래는 최대한 모아서 세탁 횟수를 줄이고, 전기 사용량이 큰 온수 대신 냉수로 빨래하자. 주 4회 돌리던 세탁기를 주 3회로 한 번만 줄여도 1년간 9kg에 달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만약 국내에 있는 총 1,918만여 대의 세탁기 중 10%만 이에 동참해도 연간 1만6,93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이는 나무 186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TIP** 건조기는 약하게 오래 돌리는 게 나을까? 아니다. 역시 강하게 설정해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 7 조리 기구도 고효율로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따지는 건 이제 어느 정도는 상식이다. 앞으로는 조리 기구를 고를 때도 효율을 따지자. 열효율이 높은 조리 기구를 사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전체 조리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조리 기구 바닥에 IH 마크가 있거나 철제 냄비, 프라이팬, 법랑 등을 추천한다. 인덕션을 살 때 고효율로 구매하자. 일반 인덕션 대신 고효율 인덕션을 사용하면 가구당 1년에 75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

## 10 물티슈 사용 줄이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물티슈를 달고 산다면 이 기회에 종이 타월이나 행주 등으로 바꾸자. 종이 타월도 나무로 만드는 것이고 행주나 걸레도 빨 때 물을 사용하니 환경에 나쁘지 않으나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아니다. 물티슈가 더 나쁘다.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터와 레이온으로 만드는 엄연한 합성섬유로, 재활용도 안 된다. 인간의 편의라는 이기심 말고는 다른 가치가 없다. 물티슈는 매립하거나 태워야만 없어지므로 자연히 처리할 때 탄소가 배출된다. 만약 하루에 10장씩 쓰던 물티슈를 5장으로만 줄여도 연간 16kg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

## 9 대기 전력 안 쓰는 가전 찾기

대기 전력은 기기 동작과 관계없이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 '전기 먹는 하마' 같은 존재다. 국내에서 대기 전력으로 버려지는 전력은 전체 가정·상업 부문 전기 사용량의 10%나 된다. 우선 대기 전력을 쓰는 가전과 일시적으로만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을 숙지하고, 대기 전력 차단 장치를 활용하자. 대표적인 대기 전력 소비 가전은 TV, 셋톱박스, 공유기 등으로 가전을 새로 바꿀 땐 되도록 대기 전력이 낮은 제품이나 절전 모드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것도 방법.

**TIP** 대기 전력을 쓰는 가전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전원 버튼 모양을 보자. 동그라미 사이에 막대가 튀어나와 있으면 대기 전력을 쓰고, 동그라미 안에 막대가 들어가 있으면 대기 전력이 없다.



### 지구온난화 시대의 필수 애플리케이션 & 콘텐츠

**1.5°C 라이프스타일 계산기** 가구당 소비액, 배달 음식 주문 횟수, 평소 식단, 커피 소비량 등 생활 습관을 체크하면 내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며 반만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준다.  
<https://15lifestyle.or.kr>

**밥상 탄소 발자국 계산기** 우리가 주로 먹는 한식 위주로 농산물 생산부터 수송, 조리 등에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발자국을 알려준다.  
[www.smartgreenfood.org](http://www.smartgreenfood.org) > 생활 속의 탄소 이야기 > 밥상의 탄소 발자국

**의류 탄소 발자국 계산기** 미국 중고 의류 플랫폼 '스레드업'이 제공하는 패션 탄소 발자국 계산기는 의류 쇼핑·관리 등과 생활 습관을 체크하면 대략적인 탄소 배출량을 알려준다.  
[www.thredup.com/fashionfootprint](http://www.thredup.com/fashionfootprint)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경기 도민이라면 앱스토어에서 당장 내려받자. 걷기, 텀블러 사용, 고효율 가전 구입,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등 다양한 저탄소 생활법을 실천할 때마다 리워드가 쌓이고, 이를 경기지역화폐로 바꿔 쓸 수 있는 경기 도민을 위한 앱이다.

# WOORI BANK GLOBAL NETWORK



● 해외 지점
 ● 현지 법인
 ● 사무소

##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BR, UK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다카지점**  
 TEL 88-02-5881-3270-3  
 FAX 88-02-5881-3241/3274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첸나이지점**  
 TEL 91-44-3346-6900  
 FAX 91-44-3346-6995  
 ADD Lotte India, 2nd Floor, No.4/169, Rajiv Gandhi Salai(OMR), Kandhanchavadi, Perungudi Taluk, Chennai-600096, Tamil Nadu, India

**몰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TEL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49(0)69 299 254 0  
 FAX +49(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러시아우리은행**  
 TEL 7-495-783-9787  
 FAX 7-495-783-9788  
 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캄보디아우리은행**  
 TEL +855 23 963 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 사무소

**팔라렐푸르사무소**  
 TEL 60-3-2163-8288  
 FAX 60-3-2163-9288  
 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TEL 95-01-643798  
 ADD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베트남우리은행**  
 TEL 84-4-7300-6802  
 FAX 84-4-7300-6806  
 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

**브라질우리은행**  
 TEL 55-11-2309-4740  
 FAX 55-11-3511-3300  
 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홍콩우리투자은행**  
 TEL 852-3763-0888  
 FAX 852-3763-0808  
 ADD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우리웰스뱅크 필리핀**  
 TEL 63-32-415-5265  
 FAX 63-32-415-5266  
 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중국우리은행**  
 TEL 86-10-8412-3000  
 FAX 86-10-8440-0698  
 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우리아메리카은행**  
 TEL 1-212-244-3000  
 FAX 1-212-736-5929  
 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

# L I F E &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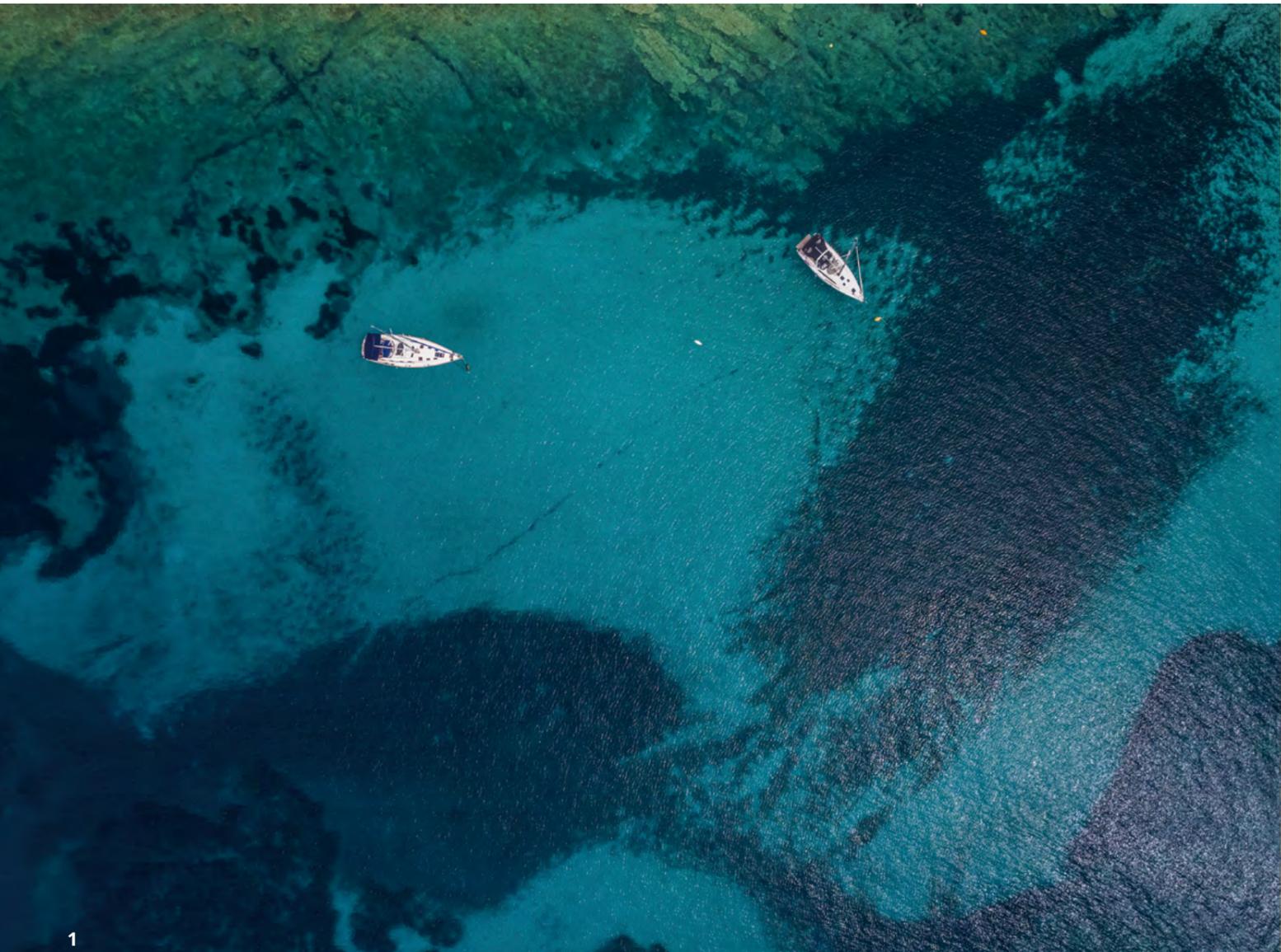
발칸반도의 빛나는 보석

# Croatia Trogir

## 크로아티아 트로기르

기원전 3세기에 형성된 해안 도시 트로기르. 직선 길이 500m 규모에 불과한 작은 섬에는 13세기 건축된 성 로렌스 성당과 15세기 세워진 카메를렌고 요새 등이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 있어 '박물관 도시'라 일컫는다.

Writer: 두경아 Photo: 트로기르 관광청



1



2

- 1\_ 아드리아해 연안과 접한 신비로운 도시 트로기르
- 2\_ 본토 남부와 치오보섬 사이 작은 섬에 위치한 트로기르는 섬 전체가 역사 유적지다.
- 3\_ 트로기르 해안가에서는 지중해 특유의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트로기르 주민이 소개하는 신비로운 도시 트로기르를 만나보세요.



3

아드리아해 연안에 맞닿아 있는 크로아티아의 항구 도시 트로기르 Trogir. 이곳의 구도심은 크로아티아 본토 남부와 치오보섬 사이에 자리한 작은 섬에 형성되어 있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덕분에 섬 전체가 역사 유적지여서 '박물관 도시'라 일컫는다.

트로기르는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인이 무역 거점으로 건설한 도시로, 당시 '수컷 염소'라는 뜻의 트라구리온(Tragurion)이라 불렸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의 도시로 변영했으며, 후기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도시가 좀 더 확장된 후 요새화됐다. 1420년부터는 베네치아공화국의 일부가 되면서 성당과 요새가 세워지고, 광장이 조성됐다. 이 시기에 도시 메인 광장이 완벽하게 재정비됐으며, 요새 또한 두 차례나 재건하고 보강됐다. 현재 트로기르의 중요 문화재 대부분은 13세기부터 15세기에 건축된 것이다.

트로기르는 또한 '장인의 도시'라 해도 손색이 없다. 구도심의 좁은 자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장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석조 건물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작은 홈이나 선뿐만 아니라 초승달, 꽃, 잎사귀, 나뭇가지, 도끼 등 다양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트로기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석조 표시와 기호가 남아 있는 도시로, 이 기호들은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일부는 장인의 서명이나 기도의 흔적으로 추정되며, 심지어 바둑이나 체스 같은 놀이판까지 발견되기도 한다. 트로기르의 장인 정신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현재 예술과 공예, 요리 등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트로기르의 중세 거리를 거닐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트로기르 구도심은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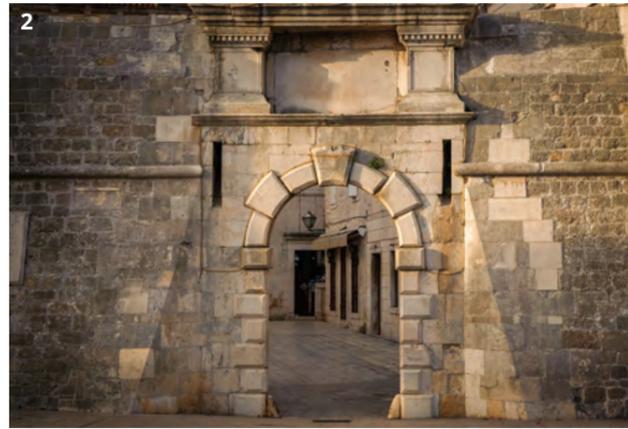
## 트로기르의 진정한 보석 성 로렌스 대성당

트로기르 구시가지 여행은 북문(Kopnena Gradska Vrata)에서 시작된다. 북문을 지나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시대로 이동한 듯한 느낌이 든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현재 시립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라그닌-판포그나 궁전(Palača Garagnin-Fanfogna)이다. 이곳에서는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도시 역사를 담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메인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트로기르에서 가장 저명한 귀족 시피코 가문이 거주한 시피코 궁전(Palača Čipiko)을 만날 수 있다. 이 궁전은 가문의 영화로움을 반영하듯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이 조화를 이루는 화려한 건축양식 및 섬세한 장식이 특징이다.

구시가지 중심에는 도시의 랜드마크인 성 로렌스 대성당(Katedrala sv. Lovre)이 자리하고 있다. '트로기르의 진정한 보석'이라 불리는 이 성당은 웅장한 규모와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1200년경부터 무려 400년 넘는 기간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당대 최고 예술가와 건축가가 참여해 질적으로 평가받는다. 오랜 건축 기간 덕분에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종탑 1층은 고딕 양식, 2층은 베네치아식 플로렌틴 고딕 양식, 3층은 르네상스 스타일이 반영됐다.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서쪽 현관문이다. 이 문은 거장 라도반(Radovan)의 대표 작품으로, 아담과 이브 등 종교 관련한 다양한 장면이 새겨져 있다. 성당 내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평가받는 곳은 성 요한 예배당(Kapela sv. Ivana Trogirskog)이다. 예배당에서는 지옥의 문이 열리며 햇빛을 든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예배당 중앙에는 제단과 성 요한의 무덤이 있으며, 아름다운 디자인과 정교한 조각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르네상스 기념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 1 성 로렌스 대성당 서쪽 현관문에는 거장 라도반이 조각한 종교적 장면이 새겨져 있다.
- 2 도시의 관문인 북문. 이 문을 지나면 중세 시대로 이동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 3 도시의 랜드마크인 성 로렌스 대성당
- 4 옛 가라그닌-판포그나 궁전에서는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도시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 5 트로기르에서 가장 유명한 귀족 시피코 가문이 거주한 시피코 궁전



## 역사와 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의 심장 요한 바오로 2세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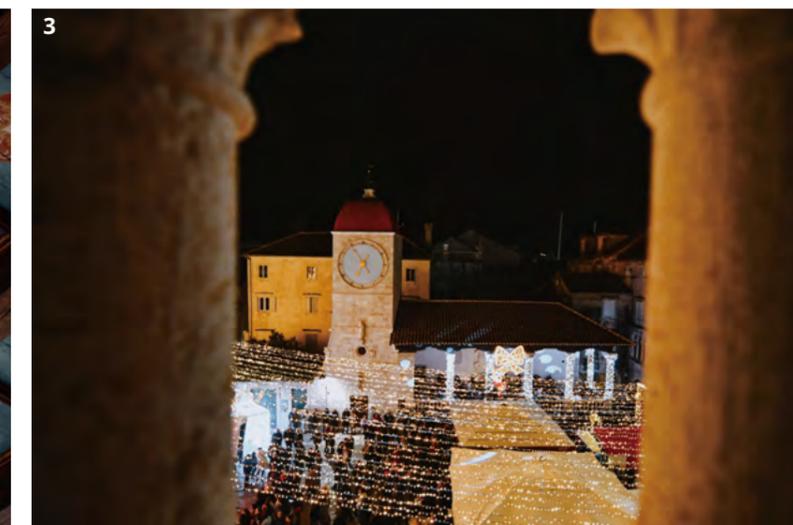
성 로렌스 대성당 앞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광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광장을 둘러싸고 주요 유적이 모여 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집회가 열리던 장소였다.

광장 동쪽에는 13세기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공작 궁전 Knežev Dvor이 있는데, 르네상스 양식의 창문과 정교한 조각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고딕 양식의 계단이 있으며, 계단 꼭대기에는 ‘귀족 회의실’을 의미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현재의 모습은 1890년 복원된 형태이며, 안뜰에서는 클래식 음악 연주회와 연극 공연이 열린다.

성 세바스티안 교회 Crkva sv. Sebastijan는 도시 시계탑 Gradski Sata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1477년 흑사병에서 살아남기를 기원하며 건설되었다. 입구 위에는 성 세바스티안과 축복하는 그리스도 조각상이 있다. 교회 뒤편에는 9세기 초에 세워진 성 마리아 교회 Crkva sv. Marije가 있으며, 현재는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종교 미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로자 Gradska Loža는 15세기 후반 건축된 건물로, 과거에는 법정으로 사용되었다. 로자의 기둥 일부는 고대 유적에서 가져온 것이다. 내부에는 재판석이 남아 있으며, 테이블 위에는 르네상스 조각과 정의에 관한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남쪽 벽에는 베네치아와 오스만제국에 맞서 싸운 크로아티아 총독 페타르 베리슬라비치 Petar Berislavić의 부조가 있다.

로자에서 남쪽 해안가로 걷다 보면 성 니콜라스 수도원 Crkva sv. Nikole이 보인다. 이 수도원은 1064년 트로기르 성벽 위에 건설된 것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트로기르의 유일한 여성 수도원이자 베네딕트 수도회의 중심지다. 이 수도원에는 기원전 3세기에 만든 ‘행복한 순간의 신’ 카이로스 Kairos를 묘사한 부조 작품이 소장돼 있다.



- 1 공연 무대로 사용되는 공작 궁전 안뜰
- 2 과거 법정으로 사용되던 로자. 기둥 일부는 고대 유적에서 가져온 것이다.
- 3 도시 시계탑으로 알려진 성 세바스티안 교회
- 4 ‘행복한 순간의 신’ 카이로스를 묘사한 부조 작품이 소장된 성 니콜라스 수도원



## 지중해 특유의 풍경이 펼쳐진 해안가와 카메를렌고 요새

16세기 목재 문이 그대로 보존된 남문을 지나면 트로기르 해안 산책길이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푸른 바다, 야자수, 정박된 배들이 어우러진 지중해 특유의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해변 산책로의 서쪽 끝에는 카메를렌고 요새 Kula Kamerlengo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오랜 기간 베네치아 지배 아래 있던 트로기르의 역사와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한 역사 유적이다. 요새는 1420년부터 1437년 사이 트로기르를 정복한 베네치아인이 건설했으며, 전략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배치되어 방어 역할을 했다. 불규칙한 사다리꼴 형태로 지은 요새는 네 모서리에 각각 탑이 자리하며, 이 중 가장 오래되고 큰 탑은 14세기 완성된 것을 증축한 것이다. 현재 이 요새는 콘서트·연극·축제 등이 열리는 야외무대로 활용되며,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도 사랑받고 있다.

카메를렌고 요새의 동쪽으로는 마르몽 글로리에트 Marmontov Glorijet가 이어진다. 이곳은 프랑스 장군 오귀스트 프레데리크 루이 마르몽 Auguste Frédéric Louis Marmont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 구조물이다. 이곳을 지나면 트로기르의 방어 체계와 역사적 역할을 보여주는 성 마르코 타워 Kula sv. Marka를 만날 수 있고, 이어서 크로아티아 본토를 마주한 넓은 녹지 공원인 요새 공원 Park Fortin이 펼쳐진다.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트로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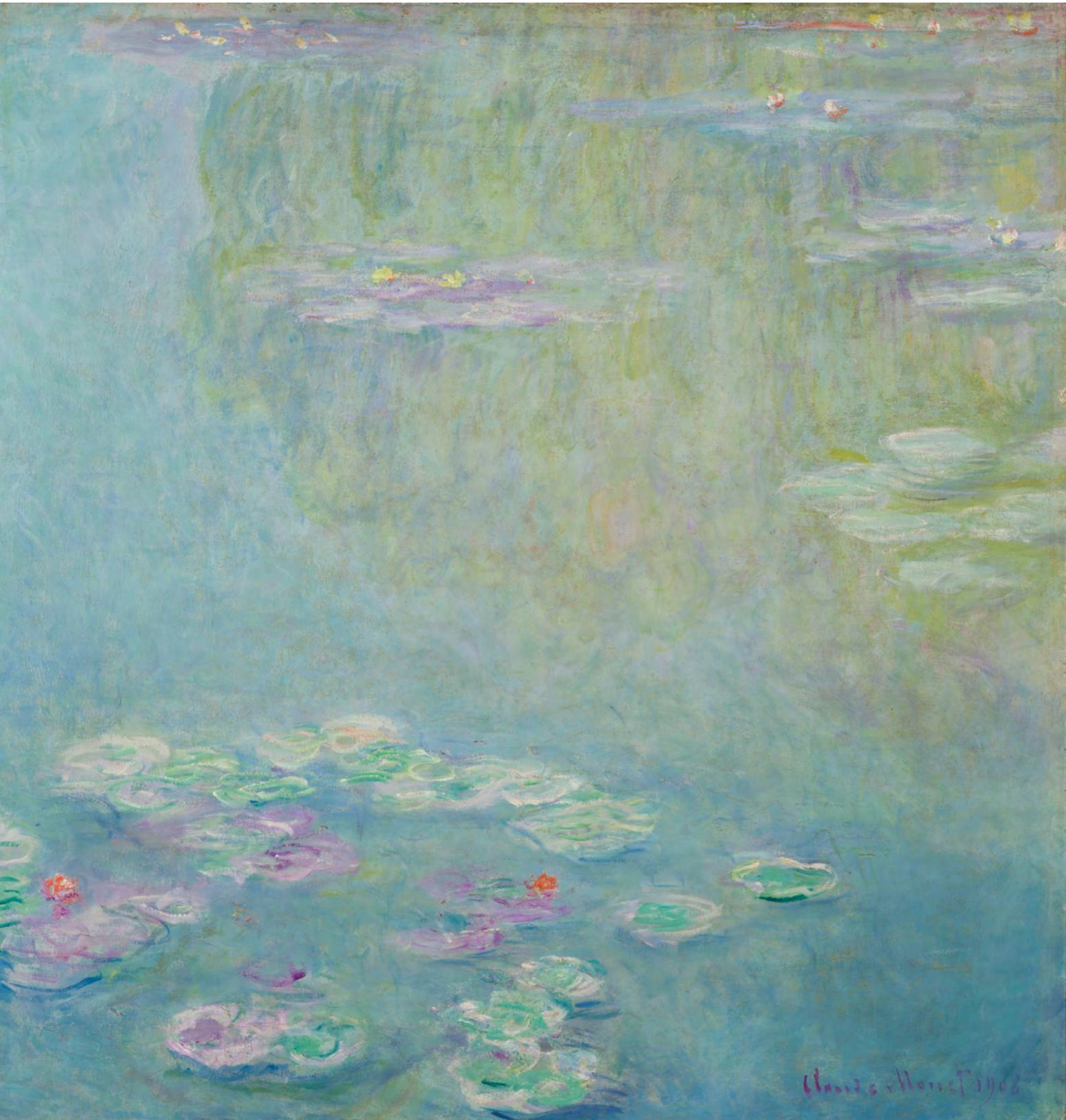
트로기르는 헬레니즘 양식과 로마 양식의 도시 배치 계획을 충실히 반영한 중세 도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도시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도로는 '히포다미안 Hippodamian' 격자 계획에 따라 배치되었다. 이후 여러 세력의 지배를 거치며, 공공 건물과 개인 건물 및 요새 등이 건설되었고, 아름다운 로마네스크 교회들과 베네치아 시대의 뛰어난 르네상스·바로크 양식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례적 일 만큼 현대적 간섭을 최소화한 덕분에 옛 도시적 요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 도시 곳곳에서는 사회·문화적 발전의 궤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트로기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트로기르 가는 법

트로기르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공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스플리트 공항으로 직항 항공편이 없으므로 크로아티아 최대 공항인 자그레브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이동해야 한다. 자그레브 공항에서 바로 트로기르로 가고 싶다면, 크로아티아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자. 비행 시간은 약 45분이며, 공항에 도착한 후 버스로 30분 정도 이동하면 트로기르에 도착할 수 있다. 자그레브 시내에서 이동할 계획이라면 버스를 추천한다. 자그레브 중앙버스터미널에서 스플리트행 버스를 탄 후, 스플리트 정류장에서 트로기르행 버스로 환승하면 된다. 약 6시간이 소요된다. 크로아티아의 여러 도시를 두루 여행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이용을 추천한다.



- 1\_ 해안선을 따라 배치되어 도시 방어의 역할을 했던 카메를렌고 요새
- 2\_ 크로아티아 본토를 마주한 넓은 녹지 공원인 요새 공원
- 3\_ 트로기르의 방어 체계와 역사적 역할을 보여주는 성 마르코 타워
- 4\_ 푸른 바다, 야자수, 정박된 배들로 지중해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트로기르 해안 산책길



클로드 모네, '수련', 캔버스에 유채, 94.8×89.9cm, 1908년, 우스터 미술관

# 미국으로 건너간 모네의 빛

미국 인상주의 컬렉션의 중심에 있는 우스터 미술관 소장품이 한국에 왔다.  
 모네와 르누아르, 폴 세잔 등 대가의 원화 걸작부터  
 미국 인상주의 대표작까지 만날 수 있는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 특별전이다.

Writer: 강은진 Photo: 우스터 미술관

## 서울나들이 온 인상파 거장 39명

지난 2월 15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ALT.1에서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 특별전이 공식 개막했다. 개막전부터 티켓이 9만 장 넘게 팔렸을 정도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전시다. 이번 특별전의 인기는 공식 개막 하루 전에 진행된 VIP 프리뷰 투어에서부터 예견됐다. 한미 양국의 문화·외교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한 보기 드문 자리였기 때문이다. 현재 전시장은 구름 관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상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는 한국 경제신문사가 인상주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미국 우스터 미술관 Worcester Art Museum과 함께 주최하는 특별전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활약한 인상주의 거장 39명의 원화 걸작 53점이 걸린다. 인상주의는 국내 미술 애호가가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사조로, 지난 수십 년간 모네와 르누아르 등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특별전은 꾸준히 열려왔다. 하지만 5년여 동안 전시가 끊겼다. 코로나19는 물론, 이후 그동안의 손실을 메워야 하는 해외 유명 미술관이 자체 전시에 집중하며 소장품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전이 보다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세상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혁신적 회화 운동이다. 인상주의 화가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고, 빛에 따른 색의 아주 작은 변화까지 고려한 살아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했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리는 것이다. 사과 하나를 그려도 빨간색이나 초록색 등 한두 가지 색으로 보지 않고, 빛이 비추는 방향이나 빛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색을 표현한다. 그 중심에는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 Auguste Renoir), 폴 세잔(Paul Cézanne), 알프레드 시슬레(Alfred Sisley) 등이 있다.

인상주의 이전에는 그림에 색을 쓸 때 화가들은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했다. 고상한 품격을 의미하는 어두운 갈색을 주로 사용했고, 원색은 도덕·순결 등을 표현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신화와 종교·역사 등 주제도 정해져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만 그럴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작품은 전시를 거부당할 정도였다. 파리에서 열린 첫 번째 인상주의 전시회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상주의란 말조차 프랑스의 한 기자가 모네의 '인상, 해돋이'를 인용해 인상파 화가를 싸잡아

‘인상주의자’라고 조롱한 데서 유래한다. 이처럼 인상주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화풍이었다.

## 처음으로 ‘수련’ 가치 알아본 미술관

프랑스 파리에 모여 새로운 예술 표현 방식을 탐구하던 세계 각지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지역적 특색과 정서를 더해 화풍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인상주의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혁신적 예술운동이던 인상주의가 대서양을 넘어 미국의 자연과 정서를 만나 재탄생하는 과정이 조명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스터 미술관이 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우스터시에 자리한 우스터 미술관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로, 고대 미술부터 동시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약 4만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이 미술관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미국 미술관으로서는 처음 구입해 들여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한 1908년 작 ‘수련’은 우스터 미술관이 1910년 현재 가치로 약 1억원에 구입한 작품이다. 당시 ‘수련’은 개인 수집가에게나 인기가 있었을 뿐, 미술관에서는 좀처럼 사지 않았다. 워낙 혹평하는 비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스터 미술관은 달랐다. 작품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실제 작품을 보기도 전에 이사회 승인부터 받아 구매했을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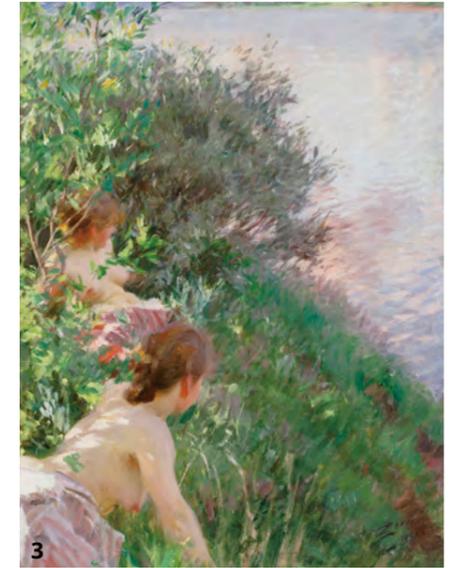
다. 현재 비슷한 연작은 수백억원대에 거래된다. 이처럼 우스터 미술관은 인상주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집·소장한 미술관으로, 인상주의가 미국에서 확산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 파리에서 태어난 인상주의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미술관으로, 지금도 인상주의 작품과 이에 영향받은 미국 화가들의 작품 컬렉션을 늘려가고 있다.

## 최초 공개되는 우스터 걸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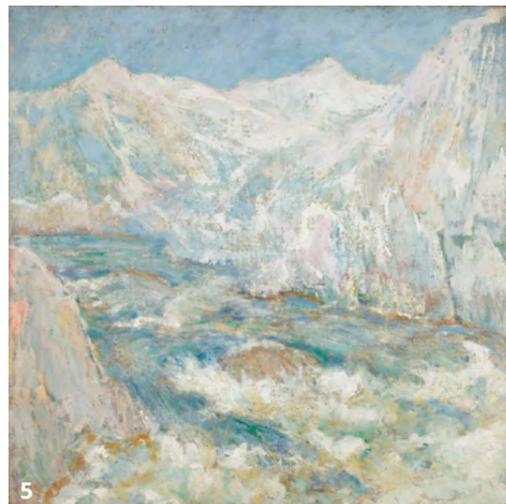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초기 인상주의의 실험적 시도부터 미국의 독특한 풍경과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까지 엄선한 우스터 미술관의 걸작들을 한국 최초로 공개한다.

1부는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기존 예술적 관습에 도전하며 새로운 표현을 모색한 장 바티스트 카미유 코로, 귀스타브 쿠르베 등 인상주의 탄생 직전 활동한 대가들의 작품으로 시작한다. 부드럽고 자유로운 붓질을 통해 안개 낀 듯한 공기 표현과 빛의 효과를 강조한 코로와 역사나 종교 대신 일상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쿠르베 모두 인상주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마침내 ‘인상주의’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모네와 동료들의 초기 걸작은 2부에서 만날 수 있다. 인상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수련’이 이곳에 걸렸다. 국내 ‘수련’ 원화 전시는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 이견희컬렉션 전시 이후 처음이다.



- 1 존 싱어 사전트, ‘캐서린 체이스 프랫’, 캔버스에 유채, 101.9×76.7cm, 1890년, 우스터 미술관
- 2 토머스 쿨, ‘피렌체 근처 아르노 강의 전망’, 캔버스에 유채, 84.5×135.3cm, 1837년, 우스터 미술관
- 2 안데르스 소른, ‘오후’, 캔버스에 유채, 101.3×69.5cm, 1891년, 우스터 미술관
- 4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아랍 여인’, 캔버스에 유채, 29.8×24cm, 1882년, 우스터 미술관
- 5 메리 카사트, ‘별거벗은 아기를 안고 있는 렌 르페브르(어머니와 아이)’, 캔버스에 유채, 68.1×57.3cm, 1902~1903년, 우스터 미술관



1880년대부터 인상주의는 프랑스 파리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3~4부에서는 인상주의가 프랑스를 넘어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융합해 발전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존 싱어 사전트, 차일드 하삼, 메리 카사트 등의 작품이다.

### 천재 예술가 작품이 주는 감동

그림 실력이 뛰어나 '화가들의 화가'라 일컫던 존 싱어 사전트는 인상주의 기법을 자신만의 세련된 스타일로 발전시켰다. 이번 전시작 '물을 나르는 베네치아 여인'에서는 일상을 포착하는 능력을, '코르푸섬의 오렌지'에서는 특유의 빛나는 색채감을 감상할 수 있다.

'미국의 모네'라는 별명이 붙은 차일드 하삼은 뉴욕을 비롯한 현대 미국의 빛과 색채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인상주의 화풍을 충실히 따랐지만, 주제는 철저히 미국적이었다. 차일드 하삼의 작품은 미국이 인상주의를 어떻게 미국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이 밖에도 미국 내 인상파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 메리 카사트의 작품까지 감상하고 나면, 인상주의가 세계 미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 5~6부에서는 인상주의에서 출발해 현대 미술의 문을 열어젖힌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세잔의 '카드놀이하는 사람들' 습작은 인상주의에서 현대미술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폴 시냐크의 '골프 주앙'은 점묘법의 태동을 볼 수 있다. 이런 작품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유행을 넘어 산업화와 도시화, 과학 발전 등 시대의 격렬한 변화를 작품 속에 녹여낸 천재 예술가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스며 있어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에게 인상주의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좀 더 나아가 한국 미술계와 국제 예술계의 교류를 촉진하는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관람 안내

전시 기간 2025년 2월 15일~5월 26일

전시 장소 더현대 서울 ALT.1

관람 시간 월~목요일 10:30~20:00(입장 마감 19:00)

금~일요일 10:30~20:30(입장 마감 19:30)

\* 매표 및 입장은 관람 종료 1시간 전 마감

\* 더현대 서울 휴점일에 따라 변동

\* 수·토요일 10:00~21:00(입장 마감 20:20)

관람 요금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 어린이 1만2,000원



1. 차일드 하삼, '프랑스 정원에서 꽃 따기', 캔버스에 유채, 71.1×55.1cm, 1888년, 우스터 미술관
2. 알프레드 시슬레, '발레터', 캔버스에 유채, 38.4×55.2cm, 1876년, 우스터 미술관
3. 폴 세잔, '카드놀이하는 사람들' 습작, 캔버스에 유채, 32.1×35.2cm, 1890~1892년, 우스터 미술관
4. 윌러드 르로이 멧케프, '서곡', 캔버스에 유채, 91.3×99.1cm, 1909년, 우스터 미술관
5. 존 헨리 트와츠먼, '멜로스톤의 급류', 캔버스에 유채, 76.2×76.5cm, 1890~1899년, 우스터 미술관

# 기능적이면서 아름다운 건축이란 이런 것 그림쇼 건축설계사무소 Grimshaw Architects

2024년 영국 최고의 건축상은 런던의 지하철 엘리자베스 라인에 돌아갔다. 이 지하철 라인을 설계한 그림쇼 건축설계사무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 ‘에덴 프로젝트’와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런던 워털루 기차역 등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설계로 널리 알려져 있다.

Editor: 두경아 Photo: 그림쇼 건축설계사무소, 런던 교통국, 게티이미지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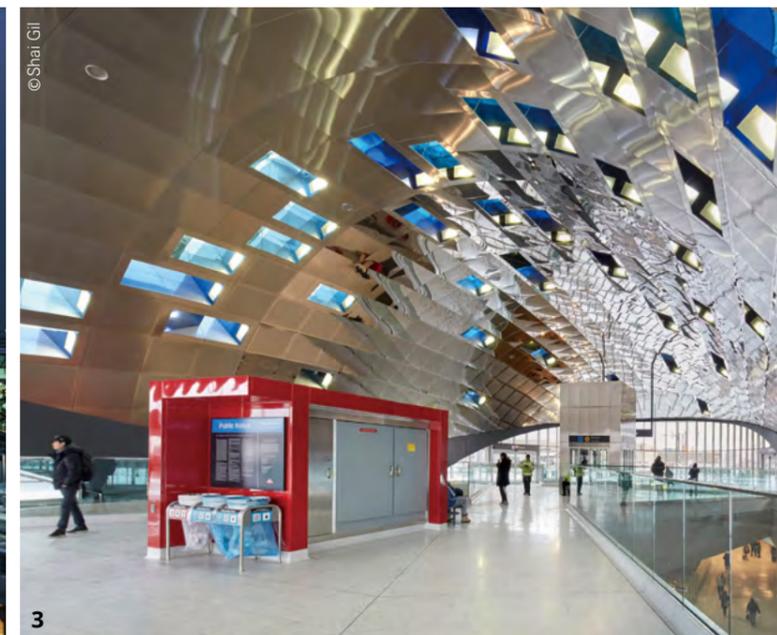
1



4



2



3

‘영국판 GTX’라 일컫는 런던의 지하철 엘리자베스 라인(Elizabeth Line)이 2024년 영국 최고의 건축물로 선정됐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는 지난해 10월 17일(현지 시각) “최고의 디자인을 갖춘 엘리자베스 라인을 스텔링상(Sterling Prize)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텔링상은 영국에서 준공된 최고의 건축물에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에는 건축물이 아닌 지하철 노선 전체가 수상한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엘리자베스 라인은 도심 교통에 효율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는 건축가가 주도한 협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노선은 일관된 디자인을 유지하며 조화를 이룬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통풍이 잘되는 플랫폼, 차분한 조명, 안내판 디자인 등 모든 요소가 승객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도 주목받았다. 이번 수상은 건축상으로는 이례적으로 여러 전문가가 공동 설계자로 함께 선정됐는데, 플랫폼 등의 설계를 맡은 전문가는 그림쇼 건축설계사무소였다.

런던을 기반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림쇼 건축설계사무소는 하이테크 건축 스타일을 선도한 니콜라스 그림쇼 경(Sir Nicholas Grimshaw)이 1980년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갖춘 건축을 추구하며, 사람을 위한 건축을 지향한다. 런던 워털루 국제 기차역과 암스테르담 베일머르 아레나 기차역, 멜버른 서던 크로스 기차역 등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왔으며, 에덴 프로젝트와 두바이 엑스포 2020을 위한 ‘지속 가능성 파빌리온’을 포함한 여러 현대적 건축물로 잘 알려져 있다.

1. 2024년 영국 최고의 건축물로 선정된 런던 엘리자베스 라인
2. ‘새로운 철도 시대를 위한 현대적 기념비’로 인정받고 있는 런던 워털루 국제 기차역
- 3, 4. 동형 천장을 통해 자연 채광을 지하 승강장까지 깊숙이 끌어들이는 독창적 설계를 갖춘 캐나다 토론토 본 메트로폴리탄 센터역

##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 에덴 프로젝트

에덴 프로젝트는 그림쇼 건축설계사무소를 세계에 알린 프로젝트다. 콘월(Cornwall) 지역의 관광 명소인 이곳은 과거 고령토를 채취하던 폐광 부지에 수만 가지 꽃과 나무가 사는 식물원으로 개발한 프로젝트로,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로 알려져 있다. 2001년 완공된 이 친환경 온실 정원은 생태 복원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으며, 환경 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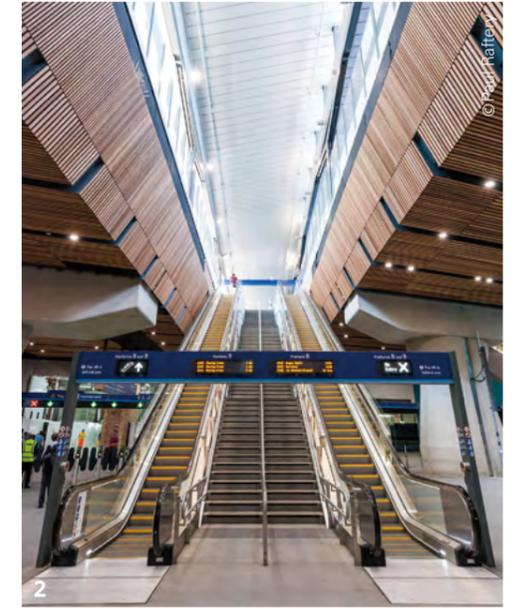
프로젝트는 철저히 규모와 환경 개념을 도입해 진행했다. 폐광 부지를 되살리기 위해 17m 두께의 흙을 덮는 데 6개월이 걸렸고, 사용한 흙만 1,800만 톤에 달했다. 경사면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0개 바위를 옮겼고, 공사 자재는 주변 광산에서 버려진 폐기물을 활용했다. 빗물 활용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에덴 프로젝트의 물 사용량 중 43%는 빗물에서 공급된다. 에덴 프로젝트의 상징물은 '바이옴'이라고 하는 온실이다. 축구공을 쪼갠 듯한 독특한 구조로, 런던탑에 내부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크기다. 열대우림관은 높이 50m, 길이 200m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공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고르지 않은 지형에 온실을 짓는 일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반투명 거품 모양의 외관은 그림쇼 경이 세수를 하다가 거품이 표면에 밀착되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낸 디자인이다. 내부에는 재활용수를 활용한 거대한 폭포가 설치되어 온실 습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 Eden Project

- 1 에덴 프로젝트의 상징물은 '바이옴'이라고 하는 온실이다.
- 2 열대우림관은 높이 50m, 길이 200m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 3 반투명 거품 모양의 외관은 그림쇼 경이 세수를 하다가 거품이 표면에 밀착되는 모습에 착안한 디자인이다.



## 보존을 최우선으로 재설계한 영국 최초의 역 런던 브리지역

런던 브리지역은 런던 남동쪽 사우스워크에 위치한 철도 종착역이자 런던 지하철과 연결된 역으로, 1836년 런던 최초의 철도역으로 개통된 역사적 공간이었다. 그림쇼의 재설계 프로젝트는 기존의 역사(보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신설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2018년 새롭게 개장한 런던 브리지역은 연간 9,0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웹블리 스타디움의 축구장보다 넓은 대형 대합실을 갖췄다. 확장된 플랫폼, 편리한 환승 통로 등 역의 기능도 크게 개선됐다. 선로 아래에는 자연 채광이 드는 넓은 대합실이 조성되었으며, 플랫폼 상부의 개방된 공간을 통해 빛이 내부로 들어오고, 목재로 마감된 천장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새롭게 조성된 대합실은 상점들이 들어선 웨스턴 아케이드와 지하철역을 연결해준다. 이 아케이드는 런던 브리지역이 건설될 당시 시장이 있던 장소였다.

런던 브리지역은 영국왕립건축가협회 건축 부문 왕립 금메달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 및 교통 관련 상을 수상했으며, 현대적 기능성과 역사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철도 인프라 재개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London Bridge Station



- 1, 2 플랫폼 상부의 개방된 공간을 통해 빛이 내부로 들어오고, 목재로 마감된 천장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 3 그림쇼의 재설계 프로젝트는 역사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신설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Jo Reid & John Peck

Grand Union Walk Housing



©Jo Reid & John Peck

1. 곡선형 알루미늄 벽을 적용해 항공기 동체를 연상케 하는 외관
2. 거실 공간에는 충분한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2층 높이로 설계했다.
3. 당초 일반 형태의 아파트를 염두에 두었으나, 그림소는 개별 주택 형태를 지닌 공동주택을 선보였다.

문화재로 지정된 하이테크 공동주택  
그랜드 유니언 워크 주택

1988년 영국 런던에서 선보인 색다른 공동주택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문화재로 인정받은 건축물이다. 19세기 테라스 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선보여 하이테크 건축의 대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 브랜드 세인즈버리 Sainsbury's의 산업 부지 재개발 일환으로, 그림소 건축설계사무소는 바로 옆에 위치한 슈퍼마켓과 함께 이 공동주택을 설계했다.

당초 일반 형태의 아파트를 염두에 두었으나, 그림소 건축설계사무소는 공동주택이지만 개별 주택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3베드룸과 테라스를 갖춘 10세대, 1베드룸 복층 1세대, 그리고 원룸 1세대로 구성된 주거 단지가 완성됐다. 건물은 운하에 접한 10m 길이의 좁은 부지에 위치하고, 남쪽에는 슈퍼마켓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창은 북쪽으로만 낼 수 있었다. 그림소는 거실 공간에 충분한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2층 높이로 설계했고, 천장에는 원형 창을 추가했다. 운하 쪽 외관은 곡선형 알루미늄 벽을 적용해 항공기 동체를 연상케 하고, 선박 창을 떠올리게 하는 둥근 창을 냈다. 건물은 고밀도 콘크리트 블록,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바닥, 방수 재료인 펠트<sup>felt</sup>로 덮인 목재 지붕 등으로 시공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다양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주거 디자인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Jo Reid & John Peck



©Nathan Willcock, Herbie Knott

첨단 기술을 위한 첨단 기술  
영국 국립우주센터

국립우주센터는 영국에서 우주 과학과 천문학을 위한 유일한 전문 시설이다. 2001년 영국 이스트미들랜즈 East Midlands 지역의 밀레니엄 랜드마크 프로젝트로 건설한 이 센터는 버려진 부지에 빗물 저류조 구조를 활용해 로켓 타워를 포함한 총 5,000m<sup>2</sup> 규모의 공간을 완성했다.

주 전시관은 2층 높이의 유연한 전시 공간으로 설계했다. 건물 외관은 타공 금속 패널로 덮여 있어 멀리서 보면 균일한 형태를 띠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투명도가 변화하는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연출한다.

천문관의 지오데식 돔 Geodesic Dome은 나선형 지붕 구조의 정점에 위치하며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를 관통하



©Nathan Willcock, Herbie Knott

National Space Center



©Nathan Willcock, Herbie Knott

는 구조로, 하늘로 솟아오른 로켓 타워와 대조적인 시각적 균형을 형성한다. 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물은 로켓 타워로, 내부에 전시된 로켓 크기에 맞춰 설계한 공간이다. 이 타워는 최소한의 보조 지지대를 활용한 고효율 강철 구조로 되어 있으며, ETFE 필로 외장재는 멀리서도 건물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1. ETFE 필로 외장재는 멀리서도 건물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2. 2층 높이의 유연한 전시 공간
3. 천문관의 지오데식 돔은 나선형 지붕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다.

# ON THE SPECIAL NIGHT

아무나 갈 수 없지만 누구나 꿈꾸는 하룻밤의 호사. 1박 숙박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며, 주로 귀빈급 인사가 머무는 최고급 스위트룸.

Writer: 이승률 Photo: 각 호텔



## 그랜드 하얏트 서울 프레지덴셜 스위트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1990년대 이후 방한한 모든 미국 대통령이 묵은 객실로 유명하다. 2019년 리노베이션을 마친 객실은 325㎡(약 98평) 규모로 리빙 룸과 다이닝 룸, 서재 등 소셜 공간과 침실·욕실 등 프라이빗 공간으로 구성됐다. 리빙 룸과 다이닝 룸 및 침실은 한강 뷰, 서재와 욕실은 남산 뷰다. 객실 내 주요 공간마다 보스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당연하지만 객실은 한마디로 호화롭다. 최고급 침대를 갖춘 침실에는 은빛 실크 벽지를, 43㎡(약 13평)에 이르는 욕실에는 대리석을 둘러 고급스럽게 꾸몄다. 침실 너머에는 러닝머신과 짐볼·아령 등을 갖춘 개인 피트니스 공간을 마련했는데,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투숙했을 때 아이디어를 얻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매일 새벽 4시 피트니스센터로 내려가 운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경호팀과 비서 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예 객실 내에 운동 공간을 만들었다고. 피트니스 공간 한쪽에는 옥상 헬리콥터 이착륙장으로 연결되는 문도 마련했다. 국가원수나 월드 스타 등 VIP가 주로 찾는 객실인 만큼 비상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묵은 유명 인사로는 역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3세 국왕, 키아누 리브스와 소피 마르소 등 해외 스타가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322 20층  
예약 및 문의 02-797-1234

1.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몸을 담글 수 있는 베스룸  
2. 아치형으로 난 전면창이 개인 저택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 롯데호텔 서울 로열 스위트

롯데호텔 서울의 최상급 객실인 로열 스위트 룸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빌 게이츠와 데이비드 벅کم 등 유명 인사들이 머물렀던 곳이다. 인테리어 비용에만 41억원을 들였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꾸몄다. 객실 내 긴 복도를 지나 거실에 들어서면 한쪽에 놓인 그랜드피아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계 3대 피아노 중 하나인 독일 C. 베히슈타인의 그랜드피아노다. 침실에는 시몬스의 최상 라인인 뷰티레스트 블랙 침대를 배치했다. 국내 호텔 최대 규모인 460.8m<sup>2</sup> (약 140평) 크기의 객실은 침실 2개와 응접실, 화상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홈바, 건식 사우나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 테크노 집의 최고급 장비로 꾸민 개인 피트니스 공간도 마련했다. 로열 스위트룸은 전담 매니저를 통해 객실 예약이 이뤄지며, 투숙객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모던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미니바가 있는 로열 스위트 거실
2.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마치 유럽 궁전의 연회장을 연상시키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 32층  
**예약 및 문의** 02-759-7311



1

## 서울신라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노스 윙'

서울신라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노스 윙'과 '사우스 윙' 두 곳이 있다. 그중 290m<sup>2</sup> (약 88평) 크기의 노스 윙 객실은 1979년 개관했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베르사유궁전을 연상시키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압권이다. 천장과 벽체의 조각은 모두 장인이 손수 조각한 것으로, 그 예술성에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어울려 격조 높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화이트 컬러를 바탕으로 그린과 베이지를 사용해 아늑함을 연출한 침실에는 마호가니 소재의 가구와 벽난로를 놓았으며, 욕실에는 저쿠지 시스템과 핀란드식 사우나도 설치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객실인 만큼 이곳을 다녀간 유명 인사들의 면모도 화려하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은 물론 마이클 잭슨과 톰 크루즈,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등이 머문 것으로 알려진다.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22층  
**예약 및 문의** 02-2233-3131



2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클럽 프레지덴셜 스위트

객실 문을 열면 높은 층고의 응접실이 나타난다. 두 층을 합친 4m의 층고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리모컨 버튼을 눌러 커튼을 걷으면 삼성동 일대 전망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 공간에서 남쪽 테헤란로 뷰와 북쪽 봉은사 뷰를 모두 즐길 수 있다. 303m<sup>2</sup> (약 92평)의 객실은 77인치 대형 TV가 설치된 거실과 8인용 테이블을 갖춘 다이닝 룸, 서재와 피트니스

공간 등으로 나뉘는데, 고급 커피 머신과 빌트인 와인 셀러 및 안마 의자 등 투숙객의 휴식을 돕는 전자 제품도 세심하게 갖췄다. 투숙 시에는 웰컴 디저트로 꽃감과 약과 등 전통 디저트와 프리미엄 전통주(와인 혹은 티로 변경 가능) 등을 제공하며,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을 맞은 고객에게는 이름을 새긴 호텔 시그너처 아이베어와 케이크를 선물한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32층  
**예약 및 문의** 02-555-5656

'자연으로의 회귀'를 모티브로 한 한국적 추상화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



1

##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조선 그랜드 마스터스 스위트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의 최고층인 35층에 위치한 조선 그랜드 마스터스 스위트는 드라마 <안나>에서 배우 수지의 신혼집으로 등장한 곳. 411.5m<sup>2</sup>(약 125평) 규모에 거실과 다이닝 룸, 침실, 파우더 룸, 홈바와 오피스 룸 등을 갖추었다. 객실 인테리어를 담당한 앙베르 & 포예Humbert & Poyet는 한국적인 선과 프랑스 건축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결합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벽면에 있는 부조는 석고로 패턴을 떠 특별 제작한 것으로 최상급 객실다운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조엣 헬링카의 '코너 시메트리 넘버 4'와 프랑크 보보의 '라루브르' 등 곳곳을 장식한 26점의 예술 작품도 이 객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 TV

- 1. 파노라마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랜드 마스터스 스위트 거실
- 2. 럭셔리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바공간



2

와 태블릿 PC를 통한 디지털 콘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 호텔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필요한 물품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객실 내 생화 세팅 등 고객의 취향에 따른 특별한 서비스도 마련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35층  
예약 및 문의 02-727-7200



1

## 포시즌스 호텔 서울 프레지덴셜 스위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최고급이다. 방에 들어서면 2,000여만원의 소파가 투숙객을 반긴다. 그 앞에 놓인 커피 테이블 가격은 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천장을 수놓은 건 1억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커스텀 조명 브랜드 라스빗Lasvit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이뿐 아니라 네덜란드 사진작가 김 보스케의 작품과 고영훈 화백의 작품까지 국내외 유명 작가의 그림과 사진, 조각 등을 곳곳에 비치해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킨다. 413m<sup>2</sup>(약 125평)에 이르는 룸에는 넓은 거실과 3개 침실, 미디어 룸, 10인용 다이닝 테이블이 놓인 주방 등이 자리했으며, 4성급 호텔의 스탠더드 룸과 맞먹는 크기의 욕실에는

건식 사우나 시설을 갖췄다. 통창으로 내려다보는 광화문과 경복궁, 청와대 등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특별한 전경도 매력적이다. 최대 6인까지 투숙이 가능하다.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7 29층  
예약 및 문의 02-6388-5000

- 1. 한국 청자의 푸른색과 따뜻한 흙빛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객실은 넓은 크기인데도 아늑한 느낌을 자아낸다.
- 2. 침실에서도 국내외 작가들의 조각품과 유리공예품 등이 잘 어우러져 있다.



2

광활한 자연을 마주하다

# Experience the Luxury: The Ultimate Australian Tour

넓은 객실과 매끈한 대리석, 고급 요리만이 프리미엄 여행의 전부가 아니다. 압도적 풍경의 자연을 다양하게 즐기며 잊지 못할 경험을 하는 것도 럭셔리 투어의 묘미다. 그런 의미에서 호주는 최고의 럭셔리 여행지로 손색없다.

Writer: 지연 Photo: 호주 관광청, 서호주 관광청, 태즈메이니아주 관광청

호주는 푸른 바다와 황금빛 사막, 열대우림과 현대적 도시 풍경까지 드넓은 대지만큼이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곳이다. 특히 호주 전역의 숨은 매력과 독보적 자연미를 경험할 수 있는 럭셔리 투어는 호주의 매력을 한층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 호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프라이빗 크루즈로 해안을 탐험하고 헬리콥터로 광활한 대지를 감상하며 고급 로지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럭셔리 투어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 호주의 숨겨진 보석 김벌리

마지막 남은 야생 지역 중 하나로 불리는 서호주의 김벌리 Kimberley는 영국 영토의 3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다. 광활한 붉은 대지, 깊은 협곡, 아름다운 해안선이 어우러져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거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헬리콥터 투어부터 전세기, 프라이빗 크루즈와 보트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된다. 특히 퍼눌룰루 국립공원 Purnululu National Park에 있는 벙글 벙글 Bungle Bungle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봐야만 그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또 프라이빗 요트를 이용해 김벌리, 몬테벨로제도, 마거릿 리버 등 서호주의 오염되지 않은 섬과 청정 자연을 둘러볼 수도 있다. 요트에는 침실을 비롯해 선 라운지 등을 갖춰 항해하면서 휴식을 즐기거나 섬에서 수영과 스노클링, 낚시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낚시를 좋아하거나 특별한 모험을 즐긴다면 헬리콥터를 이용한 헬리 피싱을 추천한다.

서호주의 거친 김벌리 지역은 아웃백 폭포, 협곡, 드라마틱한 해안선과 함께 많은 배리먼디 농어의 서식지다. 크고 아름다운 배리먼디와 맹그로브 잭스, 아치피시, 살벤 자리, 메기 등 많은 어종을 낚을 수 있는 빌러봉(강의 범람으로 형성된 호수)에서 완만한 경사의 해저까지 최고의 낚시 스폿을 방문할 수 있다.

- 1\_ 김벌리 중심부에 위치한 엘 퀘스트로 홀스테드. 김벌리 최고의 럭셔리 리조트로 절벽 위에 있어 첩벌린 협곡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 2\_ 헬기나 경비행기를 이용해 차원이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 익스클루시브 럭셔리 리조트 엘 퀘스트로 홈스테드

김벌리 여행의 정점은 엘 퀘스트로 홈스테드 El Questro Homestead에 머무는 것이다. 김벌리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거친 김벌리 환경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럭셔리 리조트로 모든 옵션이 포함된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단 18명만 투숙할 수 있는 프라이빗 숙박 시설은 절벽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다. 덕분에 멋진 챔벌린 협곡 Chamberlain Gorge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지역 전문가가 안내하는 가이드 투어로 약 100만 에이커(4,050km<sup>2</sup>) 규모의 야생 지대 민간공원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숙객들은 천연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하이킹 또는 크루즈를 통해 협곡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경비행기를 타고 엘 퀘스트로 야생 공원 El Questro Wilderness Park이나 퍼놀룰루

국립공원을 탐험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 자연과 미식, 힐링이 공존하는 태즈메이니아

호주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태즈메이니아 Tasmania는 다양한 야생동물의 안식처이자 야생 지대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초원과 메마른 고봉, 때로는 안개가 자욱한 열대우림을 지나 새하얀 모래 해변부터 밝은 주황색을 띤 거석까지 산책할 수 있는 다채로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다양한 야생 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개인 맞춤형 투어를 이용하면 여행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자연, 동물, 명소 등을 좀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태즈메이니아 주머니늑대나 오리너구리 같은 희귀 동물을 관찰하거나, 셀러 도어에서 와인을 즐기며 현대적이면서도



2

국립공원  
사파이어  
©



3

국립공원  
사파이어  
©

1. 전체 면적의 약 60%가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20%는 세계유산 지역으로 등재된 태즈메이니아
2. 와인글라스 베이에 내려다보이는 새파이어는 호주 최고의 럭셔리 로지 중 하나다.
3. 새파이어에는 굴 양식장 체험, 양봉, 와이너리 방문, 선상 크루즈 등 투숙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소박한 매력이 어우러진 프라이빗한 경험도 즐길 수 있다.

## 색다른 체험과 최적화된 미식 여행 이스트 코스트

태즈메이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의 고장으로 미식 여행까지 가능한 지역이다. 시푸드 시덕션 투어 Seafood Seduction tour를 이용하면 배를 타고 다니며 바다 위에서 탄 해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맛까지 볼 수 있다. 굴 양식장에서 직접 탄 굴과 스노클링으로 잡은 야생 전복, 연어 양식장을 방문해 맛보는회는 특별한 경험뿐 아니라 미식의 즐거움까지 제공한다.

태즈메이니아까지 왔다면 절경을 자랑하는 프레이시넷 국립공원 Freycinet National Park을 놓칠 수 없다. 해저드 Hazards로 알려진 우뚝 솟은 분홍빛의 산은 풍경에 그늘을 드리우고, 산 아래에는 잔잔하고 푸른 와인글라스 베이 Wineglass Bay가 자리한다. 순백의 백사장과 푸른빛 만은 해안가 숲길 하이킹의 명소로 꼽힌다. 보다 광활하게 즐기고 싶다면 경비행기를 이용해 해

안 절경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한다. 대부분 도로로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레인지, 암석 지대, 해변, 만 등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프레이시넷에서 가장 큰 호사는 새파이어 Sapphire에서 묵는 것이다. 새파이어는 호주 최고의 럭셔리 로지 중 하나로 20개의 최고급 스위트룸과 테이스파를 갖추고 있다. 또 맞춤형으로 제공된 20가지 이상의 서비스와 태즈메이니아 최고의 음식 및 와인을 제공한다. 투숙객은 긴 장화를 신고 물속에서 바로 건진 굴과 함께 태즈메이니아 스파클링 와인을 맛보고, 양봉을 하거나 멸종 위기종 보호 프로젝트에 대해 배우며, 호화로운 오찬이 제공되는 와인글라스 베이 여행 유람선을 경험할 수 있다. ●

### 보다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남들과 다른 혹은 익숙한 여행지도 처음 방문하듯 새로운 스타일의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샬레트래블앤라이프 Chalet Travel & Life를 이용해보자. 여행지에서의 색다른 체험과 특색 있는 숙소는 물론 원하는 여행 지역과 타입, 선호하는 항공사, 호텔 등급, 예상 금액 등 개인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여행이 가능하다. 샬레트래블앤라이프 [www.chalettravel.kr](http://www.chalettravel.kr)

국립공원  
이스트 코스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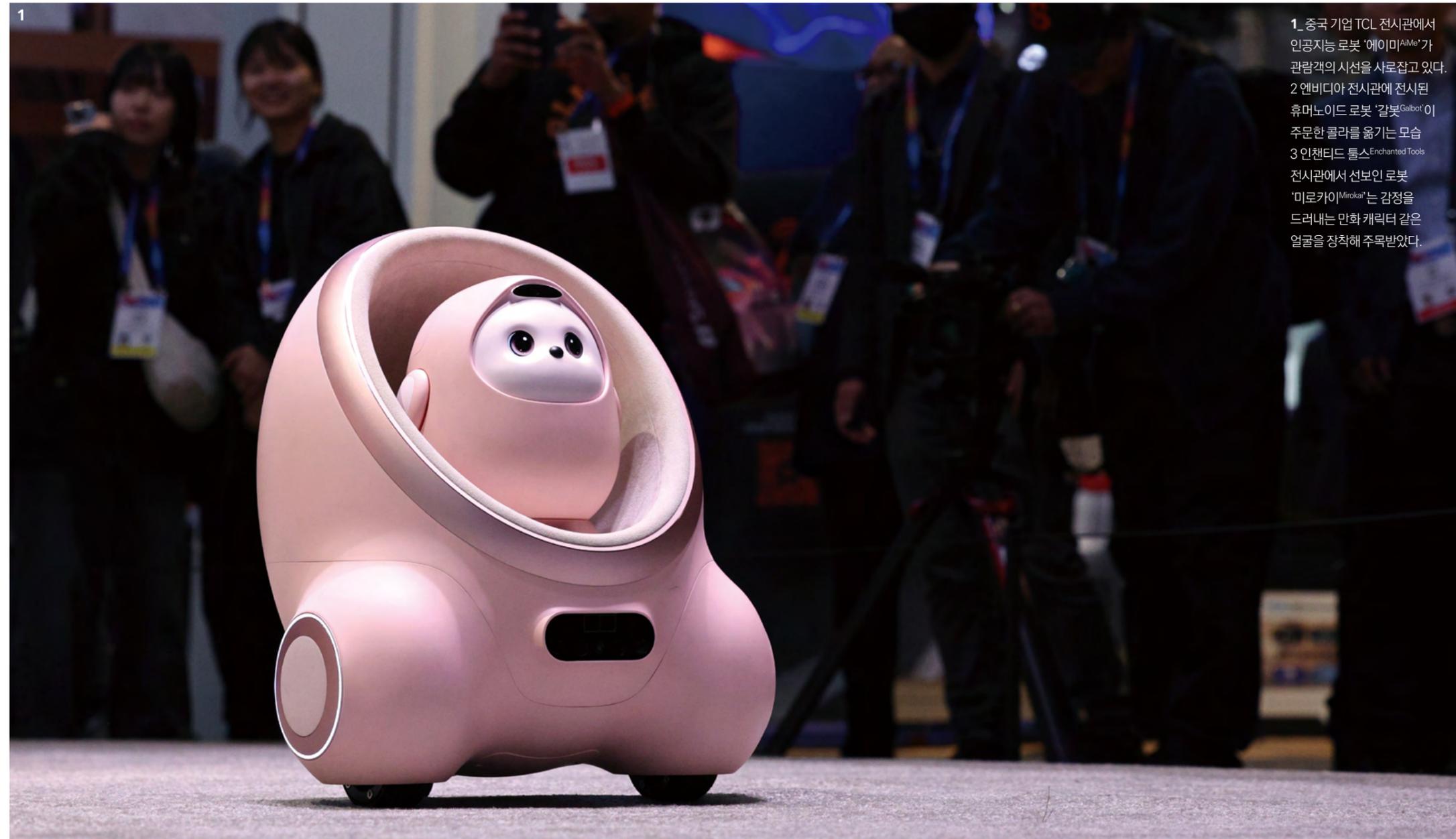


1

# CES 2025로 보는 미래 예고편

세계적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4일간 성황리에 열렸다. 진화한 인공지능<sup>AI</sup> 기술로 미래를 그린 생생한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Writer: 한소영 Photo: 한경DB, 연합뉴스 Reference. <CES 2025>(더밀크, 한국경제신문)



1

1 중국 기업 TCL 전시관에서 인공지능 로봇 '에이미<sup>AI Me</sup>'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 엔비디아 전시관에 전시된 휴머노이드 로봇 '갈보<sup>Galbot</sup>'이 주문한 콜라를 옮기는 모습  
3 인첸티드 툴스<sup>Enchanted Tools</sup> 전시관에서 선보인 로봇 '미로카이<sup>Mirokai</sup>'는 감정을 드러내는 만화 캐릭터 같은 얼굴을 장착해 주목받았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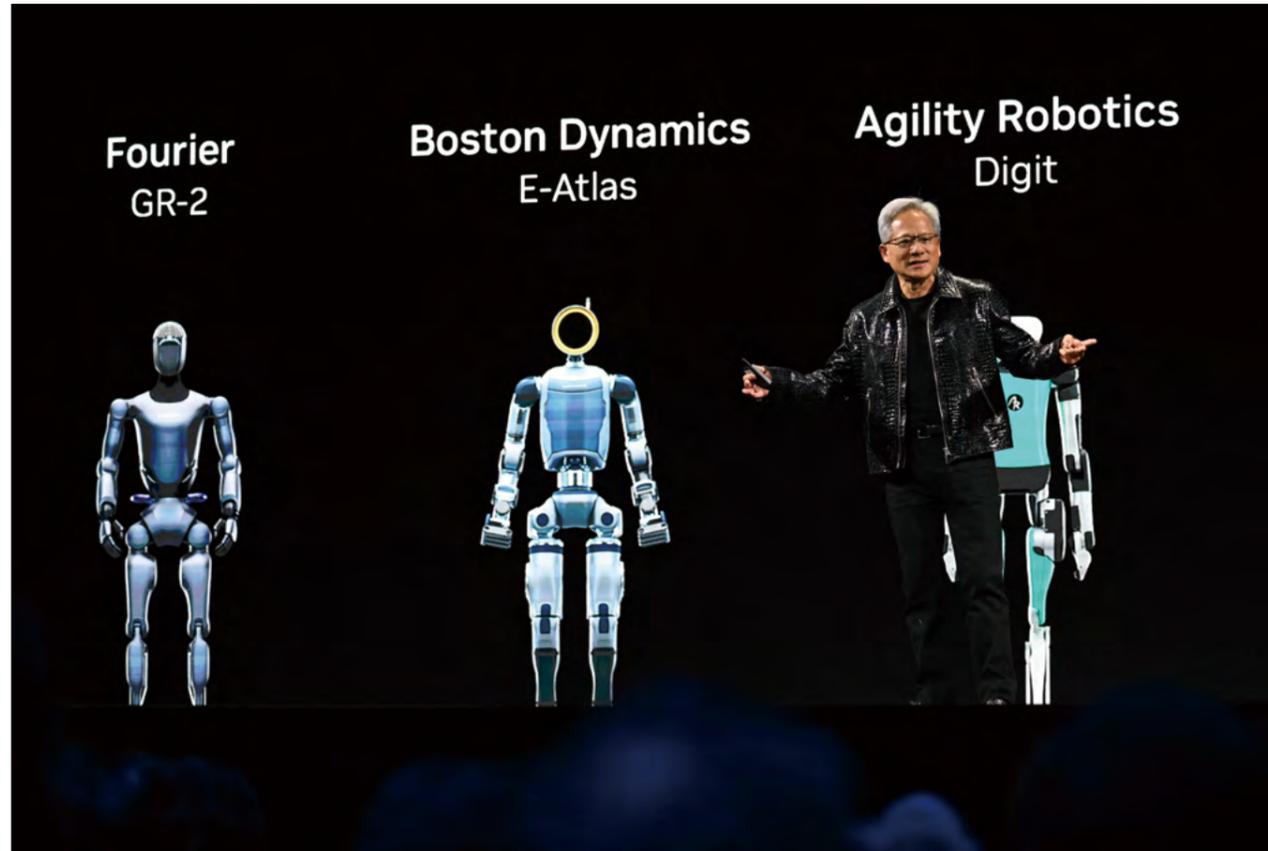


3

## scene #1

### 피지컬 AI가 만드는 로봇 세상

올해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sup>CES</sup>를 두고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라는 평은 전혀 과언이 아니다. AI는 이제 주요 산업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기술이 됐다. 단순히 데이터를 인지·분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sup>Generative AI</sup>가 AI 자체로 통용된다. 무엇보다 이번 CES에서 돋보인 것은 피지컬 AI<sup>Physical AI</sup>다. 즉, AI가 실물 세계로 튀어나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피지컬 AI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해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되는 AI를 말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스마트 기기에 탑재되어 지능적으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지난해 많은 주목을 받은 웨어러블 기기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이번 CES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향연을 이뤘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인간 대신 고된 노동을 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 반려로봇으로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이제 로봇에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인간 행동을 따라 하고, 지시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야 한다는 것. 과연 로봇은 ‘생각’하고 있을까? CES 전시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랑스러운 표정은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안겨준 한편,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젠슨 황이 이번 CES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로봇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소개하고 있다.

scene #2

젠슨 황, AI 황제의 탄생

올해 CES의 메인 이벤트는 단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설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젠슨 황 기조연설의 중요성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최초로 아이폰을 공개한 프레젠테이션과 견주었다.

대만계 미국인 전기공학자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공동 설립자이자 현 사장 겸 CEO다. 대학 졸업 후 LSI 로직의 이사이자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1993년 서른 번째 생일을 맞아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표적 AI 기업으로, 현재 세계 그

래픽처리 장치GPU 시장에서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핫한 기업이다. 시가총액은 1조 달러에 이른다. 엔비디아의 수장인 그의 기조연설 현장은 초대박 난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그가 소개한 신기술 중 하나는 '코스모스 월드 기초 모델(COSMOS World Foundation Model, 이하 코스모스 WFM)' 플랫폼이다. 그는 코스모스 WFM이 로봇공학 및 산업 AI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모스 WFM은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 입력값을 기반으로 가상 세계를 동영상 형태로 생성한다.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실제와 거의 똑같은 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자율주행차나 로봇 훈련이 가능하다. 즉, 코스모스 WFM을 통해 자율주행차와 로봇의 피지컬 AI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

scene #3

헬스케어 기술이 바꾸는 고령사회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크나큰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할 기술적 해법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헬스케어 기술은 그 해법 중 하나다. CES에서 눈길을 끈 기술은 에이지테크(Age Tech)와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이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 위딩스(Withings)는 고령층을 위해 설계한 혈압 모니터링 기기 'BPM Vision'을 선보였다. 대형 컬러 화면과 직관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개인화된 지침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에이지테크의 핵심이다.

한편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은 말 그대로 다양각색이다. 일본 기업 바이오닉엠(BionicM)이 개발한 디지털 의족 '바이오레그(Bio Leg)'는 의족을 자신감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아이템으로 탈바꿈시켰다. 일본 주류 기업 기린홀딩스에서 발표한 '전자 소금 손가락' 역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분야에서 단연 이색적이었다. 전류를 사용해 저염 식품의 짠맛과 감칠맛을 강화하도록 설계한 손가락은 저염식을 도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지향하도록 돕는다.



바이오닉엠의 디지털 의족 바이오레그

scene #4

진격의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에서의 키워드는 네 가지다. 전동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SDV) 기술 그리고 생성형 AI다. 올해 전시된 차량은 대부분 전기차였다. 지난해는 수소차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전기차로는 볼보의 'EX90', 장성자동차(Great Wall Motors)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니혼다모빌리티(SHM)의 '아펠라(Afeela)' 등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자율주행차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구글 웨이모, 아마존 죽스, 테슬라 등 기업들은 도심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SDV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서비스 관련 플랫폼도 다수 전시됐다. 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를 공개하며 한층 진화한 차량 내 정보 표시와 사용자 경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BMW의 '파노라믹 i 드라이브'는 차량 내부에서의 콘텐츠 소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로 주목받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은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아마존과 BMW가 협력해 개발·양산한 차량은 사용자의 요청을 정확히 해석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기술을 시연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혼다 전시관에 설치된 전기차 플랫폼 혼다 제로



scene #5

가전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홈

AI가 대중의 삶에 좀 더 가깝게 스며들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스마트 홈 기술이었다. 스마트 홈 기술은 AI와 사물인터넷<sup>IoT</sup>이 만들어가는 이른바 ‘리빙 인텔리전스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했다. 리빙 인텔리전스 시대에는 자동화를 넘어 지능형 디바이스가 집 안 곳곳을 차지한다. 모든 기기와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지능형 디바이스는 기기의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홈의 가전제품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을 점점 더 최적화한다.

가전제품 기업은 단순히 기기를 판매하는 전통적 모델에서 벗어나 공간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건강을 챙겨주는 공간’, ‘노인 돌봄을 위한 공간’ 등과 같은 새로운 맞춤형 공간을 판매하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정 내 모든 기기를 IoT



로 연결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홈 생태계를 선보였다. 스마트 홈은 사용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온도와 조명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나아가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단과 운동 계획을 추천하기도 한다.

1.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새로운 경험을 보여주는 집’이라는 주제로 선보인 아트TV를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있다.

2. 삼성전자는 올해 CES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집’이라는 주제의케어 서비스도 선보였다.

scene #6

지속 가능성도 기술로 해결

이번 CES는 AI를 통한 거의 모든 것의 자동화가 효율성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줬다.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과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을 선보인 곳은 다름 아닌 국내 기업이었다. 국내 농기계 제조 기업 대동은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AI 농업 기술을 선보였다. 먼저 ‘AI 다기능 농업 로봇’은 딸기 재배 작업을 기준으로 음성 지시를 이해하고, 생육 환경을 분석해 식물을 다른 데 옮겨 심거나,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꽃이나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기술을 발표했다. 이는 AI 기술이 특정 작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엔드투엔드<sup>End-to-End</sup>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는다. 또 농업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작물별 생육 환경을 자동 조정하는 ‘AI 식물 재배기’도 선보였다. 씨앗 캡슐을 넣으면 AI가 품종을 인식하고, 온도·습도·조도·배양액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며, 수확 시기도 예측한다. AI 식물 재배기를 통해 누구나 도심이나 실내에서 맞춤형 건강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안전하면서 화석연료가 필요 없는 생산적 인프라 비전도 엿볼 수 있었다. 볼보의 마틴 룬스테트 CEO는 기조 연설을 통해 전기화, 수소 연료 전지, 재생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 기술을 통해 화석연료 없는 운송 방안을 제시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를 의미하는 넷제로<sup>Net-zero</sup>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파나소닉의 유키 쿠스미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2035년까지 전체 매출의 30%를 AI 기반 친환경 사업에서 창출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2030년까지 모든 공장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3억 톤 이상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



1. 대동의 인공지능 다기능 농업 로봇이다. 장착된 AI가 사람의 음성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지해 다양한 작업을 판단 수행한다.

2. 안전,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솔루션으로 개발한 볼보의 자율주행 트럭이다.



# 2025 상반기 주목할 만한 클래식 공연

올해도 굵직한 클래식 공연이 쉼 없이 펼쳐진다. 세계 3대 오케스트라의 빅 매치가 예정돼 있으며, 줄 이어 스타들이 내한한다. 상반기를 화려하게 장식할 주요 클래식 공연을 살펴보자.

Writer. 강은진 Photo. 각 공식 홈페이지



## 메켈레·임윤찬 무대, 최고 인기

2025년 국내 클래식 공연 라인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세계 3대 오케스트라 로열 콘서트헤바우와 베를린 필하모니, 빈 필하모닉의 빅 매치가 예정돼 있으며, 설명이 필요 없는 성악가 요나스 카우프만을 시작으로 스타 음악가들의 내한이 줄을 잇는다. 또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클래식 스타 조성진, 임윤찬의 리사이틀이 열려 클래식 애호가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6월 13일 LG아트센터 서울과 14~15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파리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가장 화제다. 현재 세계적으로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천재 음악가 2인 지휘자 메켈레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어우러짐을 볼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4월 29일 롯데콘서트홀,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9년 만에 내한 공연을 펼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눈길을 끈다. 음악감독 크리스티안 마첼라루가 지휘하며,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캉토로프가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온전히 생상스 작품으로 구성된 롯데콘서트홀 공연은 한국에서 초연되는 '맹세에 의한 3개의 교향적 회화' 중 3악장으로 공연의 포문을 열며, 캉토로프의 부드럽고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연주로 생상스의 이국적 정서가 담긴 피아노협주곡 5번 '이집트'가 구현된다. 이뿐 아니다. 4월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 5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6월 밤베르크 심포니 공연이 잡혀 있다. 7월엔 전통의 강호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가 내한한다.

## 거물급 연주자들, 독주도 가득

통영음악제 '상주 음악가'로 선정된 임윤찬은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3월에, 조성진은 라벨 독주곡으로 6월에 공연을 연다. 전 세계 음원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청취된 음악가로 이름을 올린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공연(4월 2일)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러시아 출신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내한이다. 먼저 피아노의 거장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6월 한국을 찾는다. 2015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한 러시아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공연도 플레트네프와 같은 6월에 열린다. 러시아 피아니즘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전세계 관객들을 감동시킨 피아니스트 쓰지이 노부유키가 3월에,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브루스 리우가 5월에 각각 한국 관객을 찾아온다.

2021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22년 윤이상 국제 콩쿠르 우승을 연달아 거머쥐며 음악계를 놀라게 한 첼리스트 한재민과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말로페예프의 듀오 리사이틀도 빼놓을 수 없다. 5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에서 두 사람은 드뷔시 첼로 소나타,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첼로 편곡 버전), 글라주노프 '음유시인의 노래', 프로코피예프 첼로 소나타를 연주한다. ●

- 1.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크리스티안 마첼라루
- 2. 파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내한하는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
- 3. 차이콥스키 콩쿠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 우리은행 TWO CHAIRS × 가연결혼정보

결혼? 나의 가치 있는 선택  
답은 가연



- **제휴서비스:** 「우리은행 × 가연 프레ستی지 서비스」주1) 1년 이용 바우처 제공
- **제휴기간:** 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단, 선착순 1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우리은행 TCE주2) 고객 중 희망고객 (단, 가연결혼정보 남녀 연령조건주3) 충족 限)
- **바우처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전담 PB/FA 통한 제휴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
- **서비스 가입 절차:** 바우처 수령 후 가연결혼정보 표준약관 및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제휴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주4) 및 외국 국적자 서비스 제공 불가, 바우처 양도 및 판매 불가

주1) 프레ستی지 서비스: 담당 매니저 2대 1 전담관리, 결혼전제 만남추천, 정회원 전용 파티 초대 등

주2) TCE: 우리은행 고객분류 기준으로 순수개인 금융수신 6개월 평잔 10억이상 고객

(금융수신: 수신+신탁+수익증권(해외펀드포함)+방카슈랑스+청약저축+통장식CD+퇴직연금(DC)가입자적립금)

주3) 연령조건: (24년도 기준) 남성 94년생(30세)~59년생(65세), 여성 99년생(25세)~63년생(61세)

주4) 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사/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원행사인 및 그 배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 만족도 91.6%** 23년 3월 1일~24년 5월 12일에 프로필 추천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매칭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총 4개 평가등급 중 상위 2개 등급[매우만족, 만족]을 선택한 비율

**가연결혼정보 전담상담센터 | 1666-5314**



# SENIOR &



삶에서 경험은 가장 큰 스승이며, 헤안의 원천입니다.  
지금껏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경험 속에서  
현재 삶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봅니다.

# 천년 가람으로, 나를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나는 봄

봄이다. 봄은 되살아나는 시간이다. 언 땅이 녹고, 언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즈음, 겨우내 아무도 찾지 않던 우물가에 먼저 와 있는 것들, 먼저 와서 도란도란 소식을 전해주는 것들. 남쪽 들녘에는 봄보다 꽃이 먼저 핀다.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줄 고찰로 떠나보자.

Editor: 이광이 <<행복은 발가락 사이로>>, 산문집 <절절시시> 작가) Photo: 김인호, 최배문, 이광이



납월홍매(臘月紅梅), 봄의 첫 화신(花信)이다. 납월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성도 재일(12월 8일)이 들어 있는 음력 설달이다. 올해는 설이 일러서 그렇지, 대개 설 전에 핀다. 올 때 화가 작년에 피는 셈이다. 이 꽃은 님은 어디쯤 오셨을까, 고개를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뭉이다. 좀 게으른 우리는 봄이 사립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3월의 매화를 보러 지리산에 간다.

## 1

### 영접의 시간이 빛나는 절 화엄사

지리산의 남사면, 아래로 섬진강이 흐르고 뒤로 노고단이 자리한 배산임수의 양명한 산자락에 화엄사가 있다. 544년(진흥왕 5년) 신라의 고승 연기 조사가 창건한 천년 가람. 금강문을 지나 보제루에 서면 정면에 대웅전, 왼쪽에 각황전이 있다. 각황전과 그 앞의 석등, 웅장하면서도 안정된 균형감과 엄격한 조화미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각황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각이고, 석등 역시 높이 6.4m로 제일 크다. 둘 다 국보다.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지 덕문 스님에게 물었더니 “산이 크잖아요” 한다. 산에 들어와 산을 못 보았느냐고 되묻는 것 같다. 각황전과 원통전 사이에 유명한 홍매가 있다. 조선 숙종 때 각황전을 증건하면서 계파 선사가 심었다고 하니, 수령 300년을 넘는다. 3월 초 꽃봉오리가 맺히고 개화하기 시작하면 경내에 은은한 향기 가득하다. 더 불지 못하고 검어져 흑매(黑梅)라 한다. 그 앞에 서면 고혹적인 아름다움에 취해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된다. 지난해 국가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선암사 선암매, 백양사 고불매, 통도사 자장매와 더불어 사찰 매화 사천왕으로 불린다.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 불상 같은 국보와 보물도 두루 둘러보고, 뜰에서 있는 탑들과 그 사이사이 울벚나무, 들매화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화엄사를 벗어나기 전에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으니, 서쪽 언덕에 자리한 사사자 삼층 석탑이다. 불국사 다보탑과 더불어 이형 석탑의 쌍벽을 이루는 걸작이다. 네 마리 사자가 떠받치는 공간 안에 여인이 있다. 탑 앞에는 석등이 서 있는데 그 등 아래 무릎을 꿇고 앉은 스님이 조각되어 있다. 효성이 지극했던 연기 조사가 어머니에게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 한다. 일명 효대(孝臺)다. 그저 돌로 보이면 쉬 떠나고 말지만, 출가한 모자간의 애틋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 한참을 머무르게 된다.



1. 고혹적인 화엄사 흑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각 각황전과 잘 어울린다. 선암사 선암매, 백양사 고불매, 통도사 자장매와 더불어 사찰 매화 사천왕으로 불린다.
2. 각황전과 석등 뒤로 아름답게 핀 흑매
3. 스님들이 각황전에 오르는 길. 뒤로 화엄사 대웅전이 보인다.

2

### 천년을 견뎠던 야생 차밭을 품은 곳 구층암

큰 절에서 나와 산으로 조금 걸어 오르면 산내 암자 구층암이 있다. 마당에 탑의 돌조각을 모아 1961년 복원한 삼층 석탑이 서 있다. 모양은 찌그러졌어도 천년을 견뎠을 것이다. 모과나무 고목을 그대로 기둥 삼아 지은 요사채는 자연과 건축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잘 보여준다. 암주 덕제 스님은 손꼽히는 차의 명인이다. 화엄사 야생 차밭은 쌍계사 차밭과 더불어 우리나라 차 시배지(始培地) 논쟁으로 유명하다. 828년 당에 사신으로 간 신라 대령 공이 차씨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왕이 이를 귀히 여겨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한다. 화엄사는 사사자삼층 석탑 앞 '석등헌다상'이 차와 관련된 최고의 유물이라는 것을, 쌍계사는 수백 년 된 우리나라 최고 수령의 차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세운다. 이런 논쟁은 사람들에게 두 곳 다 가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역설을 얻는다.

암자 산자락을 둘러 약 8만2,645m<sup>2</sup>(2만5,000평) 규모의

야생 차밭이 있다. 이 넓은 차밭의 총관리이자 차 생산자가 덕제 스님이다. 사월이 되면 차나무에 새싹이 튼다. 곡우 즈음에 스님은 마을 주민 20여 명의 일손을 사서 차 농사를 시작한다. 한 달가량, 잘 자란 것은 세 번, 느린 것은 한 번만 따. 찻잎은 한데 모여 세 종류의 차가 된다. 흔히 녹차라 불리는 '튀음차', '발효차', '후발효차'. 녹차는 뜨거운 술에 여러 번 유념(揉捻)을 해서 만들고, 발효차는 청국장 뜨듯이 독 안에 차를 넣고 불을 때서 발효시킨 차다. 스님은 천년, 화엄사 차맥을 잇는 '다승(茶僧)'인 셈이다. 제다비법을 물으니 "나무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기르지도, 자르지도, 꺾지도 않고 대숲 그들의 차나무에서 조심스레 잎만 따. 큰 절에서 꽃을 보고, 암자에 들러 해차 한 잔 얻어 맛보는 일. 봄바람이 불 때 이만한 호사가 어디 있겠나 싶다.

1. 사찰 차의 명인 덕제 스님이 녹차를 뒤고 있다.  
2. 천연 그대로, 모과나무 기둥이 일품인 구층암



© 최배만



3

### 일연 스님이 살았던 진달래 고원 대견사

매화는 눈 속에서도 피어 고고한 세한고절(歲寒孤節)을 뽐내지만, 두루 붉게 한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것이 진달래다.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고 화전을 부쳐 먹을 수 있어 '참꽃'이라 하고, 철쭉은 잎이 나고 꽃이 나중에 피고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 한다. 5월, 지리산 세석평전에서 펼쳐지는 꽃 세상은 '철쭉제'이고, 대구 비슬산 대견사 산정에서 만개하는 꽃 세상은 '참꽃 축제'다.

대견사는 비슬산 정상 바로 밑, 얼굴의 눈썹쯤에 오목하게 앉아 있다. 지리산 법계사, 설악산 봉정암과 더불어 1,000m가 넘는 고지에 자리한 몇 안 되는 비보사찰이다. 비슬(飛驒)은 신선이 비파(琵琶)와 거문고(琴)를 타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이름 지어졌다. '대견(大見)'은 '크게 보고, 크게 느끼고, 크게 깨친다'는 뜻이다. 창건은 신라 헌덕왕(809~826) 때로 추정한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이 계셨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227년 스물둘의 나이로 승과에 급제해 초임 주지로 부임한 곳이 '보당암'이다. '비슬산 정상 가까운 곳에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 있고 일망무제의 울망졸망한 산세, 낙동강이 발아래 굽어 보이는 곳'이라는 기록에 바탕해 보당암을 지금의 대견사로 본다. 스님은 22년간 머물면서 <삼국유사>의 '사초(事草)'를 닦았다. 대견사는 몽골 침입 등 외침으로 얼룩진 이 땅의 고된 역사와 함께 '사(寺)'와 '사지(寺址)'를 오가는 생멸을 거듭했다. 2014년 이곳에서 '개산대제'가 열리면서 절터는 다시 절로 환생했고, 스리랑카 쿠루쿠데 사원에서 부처님 진신 사리 1과를 기증받아 적멸보궁이 되었다.

4월이면 이미 졌을 진달래가 비슬산에서는 절정이다. 절에서 능선을 따라 대견봉으로 이어지는 약 99만1,736m<sup>2</sup>(30만 평)의 드넓은 평원에는 분홍빛 눈이 내린 듯, 연분홍비단이 깔린 듯 진달래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절이 붉은 망토를 두른 그 비경을 찾아, 봄이 완연하거든 전기차(셔틀) 타고 산에 올라볼 일이다.



1. 대견사 삼층 석탑  
2. 비슬산 대견사로 가는 길  
3. 초파일을 앞둔 대견사의 모습

4

마음으로 보는 사찰  
관룡사

창녕 관룡사觀龍寺는 원효대사가 백일기도를 마치고 회향하던 날, 갑자기 화왕산 마루에 뇌성벽력이 치더니 삼지三池에서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는 데서 이름을 가져왔다. 용이 승천하는 것을 정말 보았을까? 그래서 '관룡觀龍'이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견見'이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관觀'이다. '관자재보살' 할 때 그 '관'이다. 그래서 관룡사에 가더라도 아무나 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94년(신라 내물왕 39년) 창건됐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을 때 목조 법당 하나 화마를 피했으나, 약사전이다. 스님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살펴보다 들보 끝에서 '영화5년 기유永和五年己酉'라는 기록을 발견한다. 그 후로 관룡사에서 기도를 올리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소문이 났

고, 사람들이 널리 찾는 수행지가 되었다고 한다. 소원이 정말 이뤄질까? 예전에 주지 우현 스님에게 물었을 때, 이뤄진다고 믿으면 이뤄지는 것이라 했던 기억이 난다. 신해행증信解行證, 믿고 알고 행하고 증득하는 것. 앞보다 믿음이 먼저라고 했다. 경내에서 나와 산길을 오르면 용선대龍船臺가 나온다. 깎아지른 듯 바위가 솟아오른 벼랑 위에 산과 들과 마을들, 탁 트인 풍광이 펼쳐져 있다. 바위는 출항을 앞둔 배의 형상이고 그 끝에 신라의 석불이 선장처럼 앉아 있는 모습, 관룡사의 백미다. 여기가 한 가지 소원을 비는 곳이다. 그 바람 아래 발원하고 있으면, 문득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 소원이란 부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 도달이 아니라 여정에 있다는 것을 석불은 소곤소곤 들려준다. 그 바람이 전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벌써 도착했고, 여태 부처님 옷자락을 놓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멀다. 관룡사의 '용'은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관룡사 용선대. 출항하는 지혜의 배, 반야용선의 형상을 하고 있다.



회암사지 부도탑 뒤로 석양이 지고 있다.

5

홍망성쇠의 무상함을 남긴 거대한 절터  
회암사지

양주 회암사지檜巖寺址. 천보산 아래 부채꼴로 펼쳐진 축구장 5개 크기의 거대한 절터로 전각이 262칸, 암자가 17개에 달했으며, 승려 3,000명이 살았다는 여말선초 제일의 왕찰王刹. 지금은 돌과 풀이 가득하고, 바람이 지나가는 빈들이다. 회암사는 고려 충숙왕 15년(1328) 인도의 고승 지공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온다. 지공의 제자 나옹에 이르러 대찰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나옹의 제자가 이성계의 꿈을 풀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는 유명한 무학 대사다. 지공, 나옹, 무학이 회암사의 3대 화상이다. 회암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 20년간 사실상 여왕으로 군림했던 조선 최고의 여걸 문정왕후다. 드라마 <옥중화>에서 김미숙이 열연한 여인. 8년 수렴청정에 이어 12년간 최고 통치자로 권력을 휘두른 중종의 부인이자 명

종의 어머니. 역불승유의 국시에 보란 듯이 승려 보우를 병조판서에 임명하고, 전국에 300여 개의 절을 공인한 인물. 그 덕에 회암사는 조선의 국찰로, 해동 제일의 가람으로 한 시대의 영화를 누린다. 그러나 왕후가 세상을 떠난 직후 보우는 피살되고 회암사는 불길에 휩싸였으니, 홍망성쇠의 무상함이 이와 같다. 동편 언덕에는 승탑과 석등, 비석이 남아 있다. 무학 대사 승탑과 쌍사자 석등은 조선 전기 부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걸작으로 꼽힌다. 지공과 나옹의 승탑과 석등도 단아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 사지여도 불만한 것이 많다. 은허매수殿墟臺總라 하여 '은성했던 은나라의 궁궐터에 보리 이삭만 패어 있다'는 탄식처럼, 돌과 풀이 무성한 사지는 애잔하고 쓸쓸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래서 사지는 마음이 헛헛할 때 홀로 가는 것이다. 여기저기 거닐며 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 외로운 마음이 많이 가신다. 외로울 때는 더 외로운 것을 만나야 덜 외로워지는 법인데, 그때는 사지만 한 것이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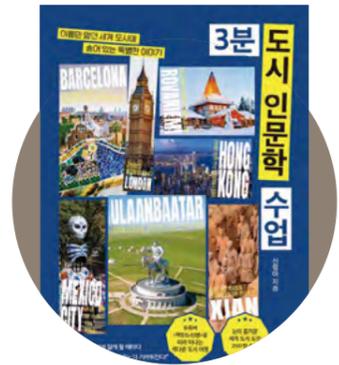
# 읽는 기쁨과 보는 기쁨

분야를 막론하고 인기 유튜브 채널이 책으로 속속 나오고 있다. 모든 콘텐츠가 영상으로 옮겨간다는 세상에서 영상이 다시금 책으로 기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Writer: 한소영



📺 <괴테 할머니의 인생 수업>  
전영애 지음, 최경은 정리,  
문학동네 펴냄  
▶ 괴테할머니tv  
www.youtube.com/  
@Goethe-Dorf



📺 <3분 도시 인문학 수업>  
신정아 지음, 아날로그(글담) 펴냄  
▶ 책읽는신 쌤  
www.youtube.com/  
@책읽는신쌤



📺 <기업 읽어드립니다>  
이가희 지음, 씨판사 펴냄  
▶ 이짜라의 기업 읽어드립니다  
www.youtube.com/  
@jjaxi\_lee/videos



## 흘러가는 말들, 책으로 눌러 담기

최근 전영애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가 여백서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채널 '괴테할머니tv'가 <괴테 할머니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으로 발간됐다. 이 유튜브를 기획하고 촬영한 최경은 씨가 유튜브 영상에

서 전영애 선생이 한 말을 정리해 책으로 펴낸 것이다. 팬을 확보한 유튜버의 책은 일정 정도의 성공을 보장한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 팬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책을 내는 이유가 반드시 그러한 성공 보장 공식을 따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전영애 교수는 자신의 말을 정리해 책을 발간해준 것에 대해 “공중에서 흩어지는 말들을 이렇게 붙잡아 간수해주는 큰 성의에 제가 감사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서문에 적었다.

전영애 교수는 <카프카, 나의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를 위한 무지개> 등의 시집을 국내와 독일에서 펴내고 <괴테 시 전집>, <서·동 시집>, <데미안>, <변신·시골의사>, <나 누어진 하늘>, <보리수의 밤> 등 6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긴 세계적인 독문학자이자 시인·번역가이며, 여전히 괴테 전집의 번역 작업을 하는 열정적인 대학자다. '괴테할머니tv'는 전 교수가 경기도 여주에 지은 집, 여백서원에서 지내는 삶과 독일 문학에 대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채널이다. 돈 주고도 못 들을 독문학자의 해설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저자가 사는 이 평화로운 모습에서 바쁘고 각박한 세상에 갇힌 현대인들은 무한한 위로를 받는다. 최경은 씨가 홀로 찍어 앵글도 비둘

고 울퉁불퉁한 흙길을 건너라 마구 흔들리는 영상 속에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로지르며 정원의 나무와 풀 사이를 묵묵히 걷는 전영애 선생의 뒷모습 등이 담긴다. 이 모습을 보는 시간 자체가 현대인에게는 힐링이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된 책은 독문학에 관한 내용이 아닌, 대중이 읽고 위로받을 수 있는 전 교수의 말들만 뽑아 편안한 문체의 에세이로 구성했다. 영상 속 힐링의 시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에세이는 삶 속 중대한 문제들에 관한 전 교수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들려준다.

##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 책에서도 통한다

<3분 도시 인문학 수업>은 도시를 소재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인문학 교양 지식을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인 신정아 씨는 유튜브 채널 '책읽는신 쌤'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정리해 소개하는 일명 '북튜버'이자 현직 중등교사다. 좋은 책들을 간략하고 흥미롭게 소개했던 저자의 내공이 엿보이는 이 책은 한 챕터가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양으로 정리돼 있다. 도시에 관한 어렵고 복

잡한 학술적 내용이 아니다.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캐나다에서 왜 퀘벡만 프랑스어를 사용할까?”, “뉴욕 맨해튼 한 가운데 거대한 공원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등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도시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문화·예술·철학 등 교양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영상 제작을 위해 짧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간되는 책은 길고 어려운 글 읽기를 힘들어하는 요즘 독자의 부담을 줄인다. 올해 1월에 나온 <기업 읽어드립니다> 역시 이와 같은 예다. 이 책은 기업의 스토리를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전하는 유튜브 채널 '이짜라의 기업 읽어드립니다'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기업의 전기를 순식간에 읽는 듯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전하는 이 채널의 기획자이자 기업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이가희 씨가 썼다.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 영상으로 올린 기업 이야기 중 고르고 고른 12개 기업의 이야기가 담겼는데, 모두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지니면서 그동안 없던 제품을 내놓았거나, 없던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라고 한다. 즉, 불황을 이기는 용기와 아이디어를 줄 핵심적 기업 이야기만 추려서 정리한 것이다. 책이 어떤 면에서 영상보다 더한 효율성을 제공하는 셈이다. ●



라비에벨 올드 코스 18번홀 티잉 구역에서 바라본 클럽하우스

## 라비에벨 골프앤리조트 전통과 현대의 만남

드넓은 자연과 아름다우면서 난도 높은 코스, 잘 관리된 잔디는 명문 골프장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 거기에 링크스 코스까지 더해진 라비에벨 골프앤리조트는 퍼블릭임에도 회원제 골프 클럽 같은 면모를 지녀 골프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이다.

Writer: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Photo: 라비에벨 골프앤리조트

### 대한민국 시그너처 홀

대한민국에는 54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골프장에는 오너와 설계자가 가장 공들여 조성한 골프장의 '얼굴'이라 할 홀이 있습니다. 적게는 18홀, 많게는 81홀 가운데 가장 멋진 딱 한 홀, 바로 '시그너처 홀'입니다. 명문 골프장의 명품 홀을 소개합니다.

강원 춘천에 있는 라비에벨 올드 코스의 얼굴인 15번 홀(파 5) 티잉 구역에 올랐다. 탁 트인 전경에 저 멀리 그린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홀. '그래도 좀 쉽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골프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다랑논을 가운데 끼고 15번 홀, 16번 홀(파 4), 17번 홀(파 3 홀) 등 3개 홀이 모여 있는데, 언뜻 보면 이 모든 게 초록빛 페어웨이다. 전장이 그리 긴 것도 아니다. 레드 티 기준 415m, 화이트 티에서는 477m(블랙 532m, 골드 505m, 실버 442m). 큰 실수만 내지 않으면 세 번째 샷으로 올릴 수 있는 거리다. "그래도 좀 쉬울 것 같다"는 선부른 기대

를 보이자 원석진 라비에벨CC 팀장이 "곧 진가를 보시게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작년 한국프로골프 KPGA 투어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트리플 보기(5개)가 많이 나온 곳이 바로 이 홀이에요." 그제야 이 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저 가운데로 잘 보내면 되겠거니 싶던 티샷부터 고민이 됐다. 정석은 왼쪽 OB 구역을 피해 페어웨이 오른쪽을 안전하게 공략하는 것이다. 2온을 노리는 장타자나 3온도 버거운 단타자라면 '지름길'인 왼쪽으로 보내는 게 유리하다.

### 회원제 같은 퍼블릭

라비에벨 올드 코스는 골프 애호가 사이에서 '명문 회원제 같은 퍼블릭'으로 통한다. 우선 경관이 아름답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널찍하게 조성하면서도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렸다. 코스 설계는 안문환 씨가 맡았다. 경기 용인의 명문 골프장 화산CC의 리모델링을 맡아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고 이스트밸리, 제주 나인브릿지, 설해원 레전드 코스 등 국내 명문 골프장 건설에 참여한 인물이다. 안문환 설계가는 이 골프장을 통해 '골프 무릉도원'을 꿈꿨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에 '산요수 山藥水·산과 물이 좋은 곳'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래서다. 국내 최고 명문 회원제 우정힐스CC를 거느린 코오롱은 이 골프장을 일반 골퍼들도 최고의 코스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퍼블릭 클럽으로 구현했다. 오랜 준비 끝에 라비에벨 La Vie est Belle,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름을 붙여 2015년 4월 개장했다.

코오롱은 페어웨이에는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심었고, 헤비 러프엔 파인 페스큐를 식재했다. 그린은 벤트그래스. 멋진 경관과 촉촉한 잔디, 난도 높은 코스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일찌감치 명문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했고, 올해로 어느새 개장 10주년을 맞았다.

라비에벨 올드 코스는 프로 골프 대회가 가장 많이 열린 골프장이기도 하다. 경관이 아름다운 데다 코스 난도까지 갖춘 결과다. 지난해까지 라비에벨 올드 코스는 한국 프로 골프 시즌의 시작과 끝을 알렸다. 지난 4월 KPGA투어

개막전인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으로 시즌을 열었고, 11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종전 SK텔레콤·셀터스 챔피언십으로 시즌의 문을 닫았다. 올해도 4월 KPGA투어 개막전이 올드 코스에서 열리는 한편, 5월에는 라비에벨의 또 다른 코스인 둔스 코스에서 한국 최고 권위의 대회 한국오픈이 열린다. 언덕을 끼고 자리 잡은 둔스 코스는 골프 마니아들에게 사랑받는 코스다. 국내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모래언덕 형태의 '링크스' 골프장에서 이국적인 골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코스를 보유한 라비에벨

올드 코스와 둔스 코스는 1년 터울을 두고 태어난 '형제'지만 생긴 건 물론 성격도 완전 다르다. 올드 코스가 잘 가꾼 정원 같은 골프장이라면, 둔스 코스는 자연을 그대로 살린 야성미 넘치는 골프장이다. 라비에벨CC는 구겨 넣으면

골프장 5개도 들어갈 수 있는 495만㎡ 부지에 올드 코스(119만㎡)와 둔스 코스(82만㎡) 36홀만 지었다. 둔스 코스는 송호 디자이너가 설계했다.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코틀랜드식 다이내믹한 골프장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마음 가는 대로 그렸다고 한다. 곳곳에 핀 코스모스와 꽃들 덕분에 알록달록한 올드 코스와 달리 둔스 코스는 정통 링크스 코스처럼 초록색으로만 꾸몄다. 오로지 초록색 명암으로만 리프와 페어웨이를 구분해놓은 것도 이 코스의 특징이다. 리프에선 일반 잔디가 아니라 잡초 같은 페스큐 잔디가 공을 움켜쥔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스코틀랜드에 많이 있는 둔스 코스를 재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두 코스에 각각 마련한 클럽 하우스의 분위기도 완전 다르다. 올드 코스 클럽 하우스는 한옥이다. 여러 채의 한옥을 연결해 만든 클럽 하우스가 골프장을 배경으로 한옥 마을처럼 펼쳐져 있다. 코오롱은 경남 사천 타니CC에 한옥 클럽 하우스를 들여놓은 디자이너 김영택 씨에게 설계를 맡겼다. 그는 "최대한 한옥처럼 지어달라"는 코오롱의 주문



골프의 오리진인 스코틀랜드 골프 클럽을 재해석하고 현대화한 둔스 코스와 클럽 하우스. 왼쪽부터 18번홀, 10번홀, 11번홀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놓아 숲속에서 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올드 코스 13번홀



한옥으로 지은 올드 코스 클럽 하우스

그대로 전통 한옥 건축 방식을 지켰다. 기둥과 뼈대 등을 모두 소나무로 만들었을 정도다. 창호와 바닥은 실용성을 위해 현대식 공법으로 했다. 반면 둔스 코스 클럽 하우스는 우주선을 떠올리게 한다. 하늘에서 봤을 때 원형 형태로 조성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둔스 코스 클럽 하우스를 지을 때 초현실적 이미지를 담아내려 했다"며 "골퍼들에게 처음 느끼는 생소함을 전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파격과 도전, 모험을 즐기는 이들의 만남

도전적 이미지처럼 둔스 코스는 기존 골프장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시도도 선보이고 있다. 유난히 더위가 심하던 지난해 여름, 둔스 코스는 7~8월 두 달간 '한여름 밤의 EDM<sup>Electronic Dance Music</sup> 축제'를 펼쳤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0팀(120명)이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18홀 라운드를 즐긴 뒤, 오후 7시 30분부터 여름밤 EDM 파티를 열어 총 1,0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 골프장에서 이 같은 형식의 이벤트를 마련한 것은 둔스 코스가 처음이다. 다시 15번 홀. 안전하게 3온을 노리기로 하고 오른쪽을 공략했는데 공이 왼쪽으로 감겼다. OB로 알았는데, 다랑논과 코스 경계를 두리번거리던 캐디가 반가운 얘기를 건넸다. "공 찾았어요." 미스 샷이 오히려 지름길로 공을 보낸 좋은 결과가 됐다. 캐디는 "무조건 끊어가길 추천한다"고 했다. 캐디 말을 듣고 레이업을 한 뒤 세 번째 샷으로 온 그

린을 노렸다. 하지만 살짝 감긴 공은 또 그대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섯 번째 샷을 그린 근처로 보낸 뒤 어프로치 후 2퍼트. 트리플 보기였다. 프로 선수들도 트리플 보기를 하는 홀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라비에벨 올드 코스는 3부(저녁) 없이 봄가을에 하루 80팀 이하, 여름에는 72팀 이하로만 받는다.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티 간격은 여느 골프장처럼 7분인데 코스 곳곳에 포캐디와 운영 인력들이 있어 앞뒤 팀 간격이 잘 유지되는 편이다. 서울 강남에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타면 1시간 20여 분 만에 갈 수 있다. ●



#### Information

규모 올드 18홀 6,593m(7,210yd)  
 둔스 18홀 6,723m(7,352yd)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436  
 그린 피 올드 주중 18만~19만원 / 주말 24만~25만원  
 둔스 주중 15만~16만원 / 주말 19만~21만원  
 문의 033-245-7000  
 홈페이지 laviestbellegolfresort.com



## 비거리는그립의악력에서 나온다 아직도 그립에 힘을 빼고 스윙한다면 주목!

골프는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힘 빼기가 힘들다는 뜻인데, 힘을 빼니 오히려 비거리가 줄고 헤드 컨트롤이 잘되지 않아 미스 샷으로 이어져 고민인 골퍼가 많다. 그런 경우 대부분 악력이 약한 상태에서 힘을 뺏기 때문이다. 악력이 강해져야 그립의 힘을 빼도 무거운 클럽 헤드 움직임을 컨트롤하며 빠른 헤드 스피드와 긴 비거리를 낼 수 있다.

Writer: 오진동 Photo: 오진동, 프리픽

골프 레슨을 받을 때나 SNS에서 비거리 콘텐츠 영상을 볼 때도 “힘을 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럴 때 보통은 힘을 빼고 싶는데 힘이 잘 안 빠지거나 어떻게 힘을 빼야 하는지 몰라 고민해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비밀은 클럽 헤드에 있다. 클럽 스윙 시 헤드 무게에 의한 원심력으로 힘을 빼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 원심력을 버티고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립의 악력이 강해야 한다. 프

로 골퍼에 비해 아마추어 골퍼의 악력은 대부분 매우 약하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 힘을 빼고 있어도 스윙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손목부터 팔, 어깨까지 힘이 들어간다. 이때 우리는 힘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드레스에서 더 힘을 빼고 헤드 무게를 느끼는데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헤드 무게가 많이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헤드 스피드가 느려지고 릴리스하기보다는 스쿠핑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악력을 높이는 것이다. 스윙에서 악력이 정확도(훅이나 슬라이스)와 비거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보고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은 팔이지만 잡는 것은 손이기 때문에 악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윙 때 제대로 힘을 빼기 힘들다. 다시 말해 팔에서는 힘을 빼야 하지만 손은 강한 악력으로 골프채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호에서는 비거리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력 늘리는 트레이닝 방법과 나에게 맞는 그립의 힘 조절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효과적인 악력 트레이닝 방법

악력을 높이고 싶어서 직접적인 악력 운동만 해서는 그 효과를 보기 힘들다. 악력이 강해지는 만큼 악력과 관련된 신체의 전반적인 근력도 향상시켜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웨이트 등 전반적인 몸의 근력을 높이는 운동도 좋지만 좀 더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해 훈련을 하면 스윙 시 필요한 근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몸의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전에서 훈련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12주 이상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운동해보자.

### 방법 1\_무게가 있는 스윙 연습 도구 활용

가장 좋은 방법은 무게가 있는 스윙 연습 도구를 이용해 빈 스윙을 하는 것이다. 실제 스윙 시 사용하는 신체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아래의 도구 중 하나를 선택해 10회 빈 스윙 후 바로 클럽을 들고 공 3개를 친다. 이렇게 하는 것을 1세트로 설정하고 하루에 5세트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하면 공을 치는 순간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1. 바람개비

골프채와 유사하게 만든 막대기 끝에 클럽 헤드 대신 4면의 날개를 달아 스윙 시 바람의 저항을 높이도록 설계된 도구다. 바람개비를 사용하면 4개의 부채 면에서 발생하는 바람의 저항을 극대화해 스윙 시 받는 힘의 방향과 궤적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다. 이때 자연스럽게 손목과 팔, 어깨 등 상체 코어 강화와 근력 트레이닝에 도움을 준다.



## 2. 골프 배트

시중에 판매하는 골프 배트를 사용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빈 스윙 때도 자연스럽게 그립과 팔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악력과 팔의 근력 트레이닝에도움을 준다.



## 3. 헤드에 수건 묶기

위의 두 가지 연습 도구가 없을 때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골프채와 수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제일 좋은 연습 도구가 될 것이다. 헤드에 수건을 묶고 스윙을 하면 헤드의 무게 증가뿐 아니라 공기저항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물론 바람개비보다 공기저항은 덜 느껴지지만 그래도 비거리 늘리는 데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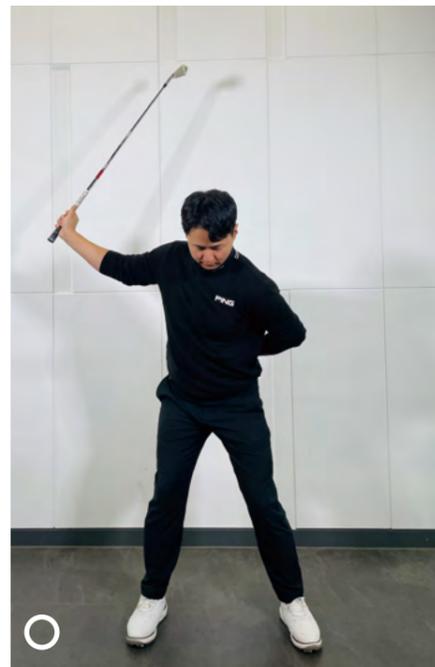
### 방법 2\_한 손으로 타격 연습하기

일주일에 2회,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한 손으로 타격 연습을 한다. 10회씩 양손을 번갈아가며 연습한다. 이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팔의 각도다. 왼손으로 백스윙 시 팔이 꺾이지 않게 살짝 굽혀준다. 이렇게 하면 그립에는 힘이 들어가지만 팔과 어깨로 그 힘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폴로 스루 동작에서 90도 각도로 잡아줘야 팔이 편하게 스윙할 수 있다. 오른팔은 팔꿈치를 90도 모양으로 만들면서 힌지를 유지한다. 폴로 스루 동작에서는 팔을 꺾고 시선은 공을 놓을 곳에 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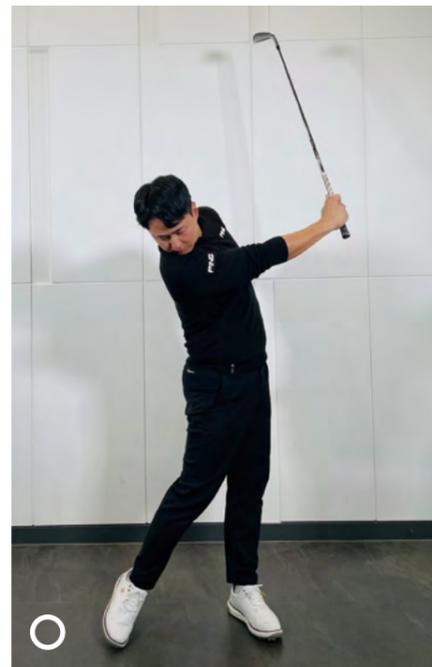


오른팔 스윙 시 타격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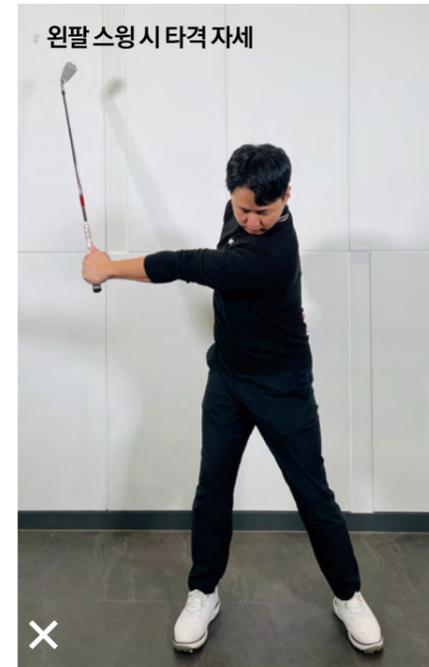
잘못된 타격 자세



바른 타격 자세



올바른 폴로 스루 자세



왼팔 스윙 시 타격 자세

잘못된 타격 자세



바른 타격 자세

### 방법 3\_악력기 사용

다른 트레이닝 방법보다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트레이닝하기 좋은 도구이자 악력 키우기에 효과도 크다. 초급자는 20kg 강도부터 시작한다. 1세트 10회, 하루 5~10세트를 트레이닝한다. 점차 익숙해지면 40~60kg으로 강도를 높이면서 1세트 횟수도 20회, 30회로 늘려가며 단련한다.



### 그립의 힘 조절 방법

악력이 좋아져 그립을 잡는 힘이 향상됐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그립을 잡을 때 어떤 강도로 잡아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자동차에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가 있듯 그립의 강도도 정타 모드와 장타 모드를 설정해야 한다. 정타를 더 원한다면 그립의 강도가 최대 10이라 가정했을 때 6~7이 적당하다. 10의 힘으로 그립을 꽉 쥐었다가 서서히 힘을 빼면 된다. 6~7의 강도를 잘 모르겠다면 A4 용지를 돌돌 말아서 쥐었을 때 살짝 구겨지는 정도의 힘이 생각하면 된다. 그립의 악력을 6~7로 조정 후 부드러운 스피드로 연습한다.

장타를 원하면 10에 가까운 강도(악력기를 잡을 때의 느낌)로 잡고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스윙 연습을 한다. 어드레스 시 팔꿈치를 살짝 굽히면서 헤드를 들고 스윙을 한다면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연습할 수 있다. 보통 12주 이상 트레이닝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트레이닝이 충분히 되었다면 악력의 평균치가 높아져 6~7로 그립의 힘을 빼고도 원하는 비거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 요약 Point

-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립의 힘이 생겨야 한다. 힘이 생겨야 힘을 뺄 수 있다!
- 12주 이상 악력 트레이닝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 장타는 10에 가까운 힘으로 최대한 빠르게 스윙
- 정타는 6~7의 힘으로 부드럽게 스윙

스타 셰프의 홈메이드 레시피

# Edward Lee's Style



2024년 넷플릭스 화제작 <흑백요리사>를 통해 많은 셰프가 새롭게 주목받았다. 그중 에드워드 리는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맛이 담긴 요리로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집에서 한 번쯤 따라 해보고 싶은 에드워드 리의 이색적 레시피를 소개한다.

Editor: 지연 Cooperation: <스모크 & 피클스>(에드워드 리 지음, 위즈덤하우스)

## 팟콩 후무스를 곁들인 소고기갈비찜

갈비는 양념해서 그릴에 굽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다. 한 가지 인기 있는 방법은 소갈비를 두껍게 썰어서 오랫동안 천천히 찜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식 갈비찜은 밥을 곁들여 먹지만, 팟콩 후무스를 곁들이면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팟콩 후무스는 갈비찜 외에도 그릴 구이, 햄 호크 등 천천히 익힌 육류 요리와 훌륭하게 어우러진다.

### 재료(6~8인분)

갈비찜용 소갈비 1.8kg, 다진 양파 1개분, 다진 마늘 5쪽분, 다진 생강 1톨분, 굵게 다진 당근 4개분, 굵게 다진 파스닙 3개분, 잣 ½컵, 노란 건포도 2큰술, 팟콩 후무스 2컵, 꿀 2작은술, 옥수수 오일 2큰술, 참기름 1큰술, 물 4컵, 간장 ¾컵, 닭 육수 ¾컵, 맛술 ½컵, 설탕 2큰술, 검은 후추 간 것 2작은술  
**팟콩 후무스** 굵게 다진 셀롯 1개, 굵게 다진 마늘 5쪽, 껍질 벗겨 익힌 팟콩 2컵, 타히니(중동 및 인도 요리에 사용하는 되직한 참깨 페이스트) ½컵, 올리브 오일 2큰술, 물 1컵, 생레몬즙 ½컵, 간장 1큰술, 쿠민 가루 2작은술, 소금 2작은술

### 만들기

- |  |  |
|--|--|
| <p><b>소고기 갈비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큰 냄비에 소갈비를 담고 물을 붓는다. 한소끔 끓인 다음 불을 낮춰 8분간 멎게 익힌다. 갈비를 꺼내 종이 타월로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 다음 따로 둔다. 국물은 체에 걸러서 2컵만 남긴다.</li> <li>2 깨끗한 냄비에 옥수수 오일과 참기름을 두르고 중강불에 맞춘다. 절반 분량의 소갈비를 넣고 5분간 전체적으로 골고루 노릇하게 지진다. 나머지 소갈비도 다른 냄비에 담고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모든 소갈비를 다시 냄비에 담고 양파와 마늘, 생강을 넣어 3분 더 볶는다.</li> <li>3 간장과 닭 육수, 맛술, 갈비 삶은 물 2컵을 넣고 자작하게 한소끔 끓인다. 설탕과 꿀, 후추를 넣고 뚜껑을 반만 닫은 채 주기적으로 갈비를 뒤적이며 1시간 정도 멎게 익힌다.</li> <li>4 당근과 파스닙, 잣, 건포도를 넣고 뚜껑을 반쯤 닫아 갈비가 부드러워지고 국물이 걸쭉하며 향이 깊어질 때까지 1시간가량 더 익힌다.</li> <li>5 팟콩 후무스를 한 덩이 곁들인다.</li> </ol> | <p><b>팟콩 후무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큰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간 불에 올려 가열한다. 셀롯과 마늘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2분간 볶은 뒤 팟콩을 넣고 2분 더 볶는다.</li> <li>2 물과 분량의 양념을 넣고 잘 휘저은 다음 한소끔 끓인다. 6분간 천천히 멎게 익힌다.</li> <li>3 익힌 재료를 꺼내 푸드 프로세서에 담고 걸쭉하고 거친 푸레가 될 때까지 간다.</li> <li>4 다시 냄비에 넣고 아주 약한 불에 올려 먹기 전까지 따뜻하게 보관하거나 실온으로 낸다.</li> </ol> |
|--|--|



이 레시피는 에드워드 리 셰프의 레스토랑 '610 매그놀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생채소를 곁들여 내면 건강 간식이 된다.

## 머스터드씨 조림을 올린 오렌지 양간 파테

양 간에는 풍미와 영양소가 가득하다. 오렌지 제스트는 파테에 은은한 향을 더한다. 간은 너무 많이 익히지 말고 파테 재료를 다 섞은 후 고운체에 내리는 단계를 꼭 거쳐야 한다. 그래야 벨벳처럼 크림미한 파테를 맛볼 수 있다.

### 재료(6인분)

양 간 340g, 다진 양파 1컵분, 다진 마늘 1쪽분,  
무염 버터 2큰술, 실온의 부드러운 무염 버터 2큰술, 다종 머스터드 2작은술, 헤비 크림 ½작은술, 버번위스키 1큰술, 세리 식초 1작은술, 오렌지 제스트 간 것 2작은술, 코셔 소금 2작은술, 검은 후추 간 것 ¼작은술,  
따뜻하게 구운 빵, 포도 차이 피클  
**머스터드씨 조림** 옐로 머스터드씨 ½컵, 브라운 머스터드씨 ½컵, 꿀 2큰술, 다종 머스터드 2작은술, 물 ½컵, 드라이 화이트 와인 ½컵, 사과 식초 2큰술, 설탕 2큰술, 천일염 1작은술

### 만들기

- 1 머스터드씨 조림은 작은 냄비에 분량의 재료를 모두 넣고 중간 불에 올려 한소끔 끓인다. 불을 낮추고 18분간 둥근하게 익힌다. 유리병에 옮겨 담아 식힌 다음 냉장고에 넣어 하룻밤 보관한다.
- 2 얼음물 담은 볼에 양 간을 넣고 최소 1시간, 최대 2시간까지 둔다.
- 3 양 간을 건져 행군 뒤 종이 타월로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 후 2.5cm 크기로 깎둑썰기한다.
- 4 30cm 크기의 프라이팬을 센 불에 올려 달군다. 무염 버터 2큰술을 넣고 거품이 일면 양파와 마늘을 넣고 2분간 볶는다. 양 간을 넣고 살짝 노릇해지도록 2분간 굽는다. 약한 불로 줄인 후 버번위스키, 세리 식초를 넣는다. 수분이 거의 날아갈 때까지 2~3분간 익힌다.
- 5 익힌 양 간 혼합물과 부드러운 실온 버터, 나머지 재료를 믹서에 넣고 강 모드로 2분간 곱게 갈아 되직한 밀크셰이크처럼 만든다.
- 6 ⑤를 고운체에 걸러서 볼에 담고, 체에 남은 건더기를 주걱 뒷면으로 꾹꾹 눌러 국물을 완전히 빼내고 건더기는 버린다.
- 7 ⑥의 파테를 작은 커피잔 6개에 나눠 담고 냉장고에 넣어 3시간 이상 식힌다.
- 8 ⑦을 먹기 전 파테 위에 머스터드씨 조림을 얹고 구운 빵과 포도 피클을 곁들여 낸다. 🍷

### <스모크 & 피클스>는

넷플릭스 화제작 <흑백요리사>에서 큰 감동을 준 에드워드 리 셰프의 첫 번째 한국어 요리 책이다. 한국 전통 음식과 미국 남부 요리가 결합된 독창적이고 다양한 레시피는 물론, 개인 의 성장 이야기와 그의 깊은 요리 철학도 담았다.



# SLOW-AGING 피부 노화 시계를 늦추는 슬로에이징의 조력자

Writer. 이승률 Photo. 박도현

뷰티 시장에서 줄곧 아름다움은 ‘젊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왔다. 젊음의 기호와 이미지를 상품화하고, 이와 반대되는 ‘늙음’은 자연 현상이 아닌 치유의 대상으로 여기곤 한 것이다. 이는 ‘아름다움은 곧 젊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젊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노화를 대하던 안티에이징Anti-aging이라는 개념 대신 ‘슬로에이징Slow-aging’이 뷰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무조건 노화를 거부하던 안티에이징과 달리 슬로에이징은 내 나이에 걸맞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갖추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오래도록 유지하자는 것.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춰 건강하고 아름답게 천천히 나이드는 것이 핵심이다.

슬로에이징 시장의 소비층은 이른바 MZ세대가 주축을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노화는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특히 20~30대는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적극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이 시기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년기 피부 상태가 예측 가능하다는 것. 이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고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시장조사 기관 칸타월드패널이 지난해 1분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최근 1년간 국내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약 4조1,113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능성 제품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거에는 4050세대를 겨냥해 노화 개선을 위한 주름 및 탄력 관리 기능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노화 케어 화장품의 다소 무거운 제형이 부담스러운 MZ세대를 고려해 고농축된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볍게 흡수되는 텍스처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한층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제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엄마들의 전유물이던 고기능성 제품이 MZ세대의 화장대에 오르며 두 번째 챕터를 맞이하고 있는 것.

더불어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최근 늘고 있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도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흐름에 합류하는 추세다.



캐비아가 지닌 놀라운 생명력으로 피부에 탄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라프레리의 아이콘, ‘스킨 캐비아 리퀴드 리프트’가 또 한 번 진화했다. 40여 년간 발전해온 라프레리만의 캐비아 과학을 집대성한 제품으로, 고도로 강력한 포물라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축적해 피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캐비아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성분이 외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바르는 즉시 탄력이 느껴지는데, 실제 라프레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비자 평가에서 약 72%의 여성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용 8주 후에는 각각 82%와 90%의 소비자가 피부가 견고해지고 리프팅된 것 같다고 답했다. 부드럽게 발리는 산뜻한 텍스처도 장점. 기존 50ml 제품 외에 30ml 제품도 출시해 휴대성도 한층 높였다. 30ml 71만9,000원대, 50ml 109만3,000원대 **라프레리**

1. 풍부한 단백질과 식물성 활동 세포가 조기 노화와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동시에 광채를 부여하는 'S-28 셀룰라리주베네이션 세럼'. 30ml 44만8,000원대 **스위스퍼펙션**
2. 1년에 단 하루만 피는 문라이트 플라워의 강한 생명력을 담은 '프레스스라 크림 리슈'. 문라이트 플라워 추출물과 3종 펩타이드, 시어버터 성분을 담아 피부 탄력 케어에 효과적이다. 50ml 46만원대 **클라랑스**
3. 얼굴 나이를 좌우하는 이마, 눈썹, 양 볼, 팔자주름 등 6개 존을 집중 케어하는 '리프팅 퍼밍 세럼'. 쫘득하면서도 끈적이지 않고 흡수되는 제형으로,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리지 않는다. 30ml 59만5,000원대 **라메르**



## EYE

얼굴에서 노화의 시그널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눈가다. 다른 부위보다 피부 두께가 40%가량 얇을 뿐 아니라, 하루 종일 깜빡이며 움직이는 탓에 탄력도 쉽게 떨어지기 때문. 특히 한번 자리 잡은 눈가 주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미리미리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1. 자는 동안 피부 재생 효과를 높여 눈꺼풀 처짐과 눈가 주름, 부기와 다크서클 등 눈가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프리미아 옛 나이트 더 수프림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15ml 46만원 **시슬리**
2. 기존 제품보다 5배 더 농축된 룬푸양 추출물을 함유해 눈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굴껍질 추출물이 눈가 피부에 화사함을 더해주는 '아이 컨투어 크림 수프림'. 15ml 34만원 **글레드보 보떼**
3. 투명하고 쫘득한 제형의 타기팅 펩타이드 콤플렉스 성분이 들어 있어 빠른 흡수와 더불어 눈가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압솔리프트 세럼 데 주'. 15ml 44만원대 **보아레**



## NECK

목은 얼굴에 비해 피부층이 얇아 탄력이 쉽게 떨어지는 데다 움직임이 많고 피지선도 적기 때문에 유독 주름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장으로도 감추기 어려워 노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위인 만큼 주름이 눈에 보이기 전부터 특별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

1. 라즈베리 줄기세포 성분이 목주름을 예방하고, 펩타이드 성분이 목라인의 윤곽을 잡아주는 '바이오 리프팅 넥 크림'. 50ml 31만1,000원 **상테카이**
2. 독자적 발효 성분인 농축형 미라클 브로스™가 피부 본연의 장벽을 강화하는 '넥 앤 데콜테 컨센트레이트'. 50ml 49만5,000원대 **라메르**
3. 강력한 안티 링클과 리프팅 효과를 발휘하는 비타민 C와 펩타이드 등 다섯 가지 활성 성분 복합체와 함께 다양한 안티에이징 성분을 혼합해 피부 코어를 탄탄하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브이-리프트 넥'. 50ml 47만원 **발몽**



## 건강한 장으로 만성질환을 극복하다

손상된 장벽 또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독소와 덜 소화된 음식물, 병원균 등을 혈류로 유입시켜 염증과 기타 전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내 몸이 아픈 이유, 문제는 장이다.

*Editor:* 강은진 *Photo:* 프리픽 *Reference:* <만성질환 자연치료 식이요법 갭스(GAPS diet)>  
(Natasha Campbell-McBride 저자, 남용현·이경언 번역)

### 장이 '제2의 뇌'라 불리는 이유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All diseases begin in the gut)”는 말을 남겼다. 최근 장내 미생물 연구를 통해 이 말이 사실로 속속 증명되면서 히포크라테스가 생각한 기전과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이 말 자체는 사람들 사이에 더욱 회자되고 있다.

아직도 장을 단순 소화기관으로 치부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장은 소화 말고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거숀 Michael Gershon 박사는 ‘장은 제2의 뇌’라고 했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장애로 이어져 머리가 아플 때도 있다. 이는 ‘장-뇌 연결축 이론(Brain-intestine Axis)’으로 설명된다고 한다. 해당 이론은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해 두 기관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뇌를 제외하고 세로토닌이 발견된 것은 장이 유일하다. 장내 미생물이 소화기 질환, 비만, 암, 치매, 우울증, 자폐증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장-뇌 연결축 이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장의 움직임과 활동은 식도부터 직장까지 5,000만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된 신경망인 장신경계(Enteric Nervous System, ENS)가 담당한다. 이를 일러 거숀 박사는 제2의 뇌라 칭했고, ‘작은 뇌’라 부른다. 이처럼 현대인에게 장내 미생물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장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상된 장을 회복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나타샤 캠벨 박사의 ‘갭스(Gut and Physiology Syndrome, GAPS)’ 이론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알레르기, 만성피로, 그리고 여러 대사성·정신적 문제들은 그 뿌리가 의외로 장 건강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소화기



관 상태와 전신에 있는 미생물의 건강이 곧 신체와 뇌의 상태를 좌우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 메시지다.

갭스는 손상된 장벽 또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 자가면역질환, 알레르기, 만성피로, 피부 질환 등의 대사 질환이 유발된 상태를 의미한다. 갭스는 많은 만성질환이 소화관의 문제에서 비롯되며, 특히 장 누수 문제가 독소, 덜 소화된 음식물, 병원균 등을 혈류로 유입시켜 염증과 기타 전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캠벨 박사는 신경과 전문의로 자신의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으면서 자폐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시작했고, 갭스 이론을 체계화시켰다. 이후 신경학적 장애와 영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 장을 회복해주는 식이요법

갭스 관련 질환이 워낙 많아 정신심리와 인체생리로 나누어 설명한다. 정신심리에는 자폐 스펙트럼, ADHD<sup>주의력 결핍 증후군</sup>, 난독증, 중독, 우울증, 강박 장애, 뇌전증, 섭식 장애처럼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장애와 정신 장애가 있



“

갭스 식단은 장 점막을 치유하고 미생물 생태계를 회복해 다양한 대사 질환을 개선하는 식이요법이다. 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갭스 식단 초기에 고기 육수같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한다. 그리고 몸의 회복 상태에 맞춰 발효식품 등 다양한 자연식품을 점진적으로 식단에 추가한다.

”

다. 인체생리에는 모든 자가면역질환과 천식, 습진, 각종 알레르기, 만성피로증후군, 위염, 식도염 등 모든 만성 소화 장애 등을 포함한다. 캠벨 박사는 갭스 이론을 통해 증상이 발생하는 부위가 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장내 미생물군이라고 단언한다. 당신이 앓고 있는 것이 류머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알레르기, 천식, 신경병증 또는 피부 질환이든 모든 질병의 원인은 장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내 건강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캠벨 박사는 만성질환 자연치료 식이요법인 갭스 식단<sup>GAPS Diet</sup>을 제안한다. 갭스 식단은 장 점막을 치유하고 미생물 생태계를 회복해 다양한 대사 질환을 개선하는 식이요법이다. 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갭스 식단 초기에 고기 육수 같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한다. 그리고

몸의 회복 상태에 맞춰 발효식품 등 다양한 자연식품을 점진적으로 식단에 추가한다. 이는 자폐 스펙트럼, ADHD,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 만성 염증, 대사 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 갭스 식단, 장 회복에 큰 도움

일부 사람은 설사, 변비, 복부팽만감, 가스 또는 기타 소화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캠벨 박사는 갭스 식단을 통해 류머티스 관절염에서 다발성 경화증, 만성피로증후군에서 천식, 당뇨병, 비만에 이르기까지 만성질환이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다고 말한다.

갭스 식단은 크게 '장 치유 단계'라고 하는 입문 단계와 유지 단계, 그리고 재도입 단계로 나뉜다. 다만, 식단을 시작하기에 앞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갭스 식단은 매우 제한적인 음식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문 단계는 더욱 그렇다. 해로운 음식을 끊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다. 또 집에서 직접 만드는 음식을 권장한다. 같은 고기 국물이라도 시판용은 효과가 없다고 한다.

갭스 식단 음식의 핵심은 동물성 단백질과 직접 만든 사골 국물, 녹말 없는 채소 및 발효식품이다. 잎채소, 과일, 육류, 생선, 발효 유제품, 김치 등 발효 야채, 견과류, 올리브 오일, 신선한 허브, 계란 등이다.

갭스 식단 중 일부는 갭스 다이어트라 불리며 유행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접근법에 가깝다. 우리가 흔히 겪는 피로, 불면, 집중력 저하, 우울감 등의 증상이 장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해결책도 장 건강에 있음을 직접 체득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다만 장 치유 단계라고 부르는 입문 단계만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 이어지며, 유지 단계 또한 2년 정도 소

요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또 중요한 식품이 제외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갭스 식단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



갭스 식단 식품 가이드

허용 식품	금지 식품
육류, 가금류 및 생선	곡물 *빵, 시리얼, 크래커, 파스타, 쿠키 등 기타 전통 제과류를 포함한 곡물로 만든 모든 음식
전분이 없는 채소 *당근, 양파,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근대, 양상추, 사탕무 등	전분질 채소 *감자, 참마, 고구마, 돼지감자, 칩, 토란 등 모든 전분질 채소와 그 재료로 만든 모든 음식
베리를 포함한 모든 익은 과일 *거의 모든 과일이 허용되며, 바나나는 식단에서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다. 다만 갈색 반점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여야 한다.	유제품 *우유는 곡물과 같은 방식으로 장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어 요구르트처럼 발효된 유제품만 허용한다.
발효식품 김치를 포함한 발효식품은 유익한 박테리아 공급원으로 권장된다.	설탕 및 첨가당 *설탕은 장내 미생물에게 완벽한 먹이, 설탕을 피하지 않고는 소화기관은 물론 다른 어느 곳도 치유할 수 없다.
유당 없는 발효 유제품 *홈메이드 요구르트, 케피어, 사워크림, 치즈 등	가공식품과 술 *모든 가공식품에는 식단에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알코올 음료도 허용되지 않는다.

#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 01 자산 관리 전문가 그룹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전략과 전망에 기반하여 주식, 채권,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주택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매수와 매도, 보유 부동산의 진단, 가치증진 방안과 투자분석까지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풍부한 부동산 투자 정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W E A L T H &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과 부에 대한 혜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행은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 드디어 서남권 최초 특화 센터 TWO CHAIRS W 여의도

금융의 메카, 여의도에 드디어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 센터가 상륙했다.  
서남권 자산가 고객을 위한 부의 거점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Writer: 강은진 Photo: 박충렬

### 고객 문의 쏟아진 TCW여의도

대한민국 금융 메카이자 서남권 부의 중심, 여의도에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 센터가 상륙했다. 바로 TWO CHAIRS W 여의도(이하 TCW여의도)다. TWO CHAIRS Exclusive 본점, 강남, 시그니처 센터 3곳과 TWO CHAIRS W 청담, 도곡, 압구정, 부산에 이은 여덟 번째 특화 센터다. TCW여의도 개점 소식이 알려지자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먼저 이용 문의를 하는 고객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서남권 부의 중심인 여의도에 우리은행 자산관리 서비스를 기다리는 자산가 고객이 많았던 것이다. TCW여의도 김미정 센터장은 경쟁이 치열한 여의도에 TWO CHAIRS 특화 센터가 문을 연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는 PB 영업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금융 중심지답게 자산관리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서 전 금융권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죠. 저

희가 우리투자증권과 동일 층에 동시 개점한 이유기도 합니다. 자산가 고객님들은 TCW여의도 방문만으로 우리은행이 가진 모든 역량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시너지 확대에 당분간 주력할 생각입니다.”

자리를 함께한 민경진 PB 지점장 역시 “여의도의 위상을 생각하면 특화 센터 진출이 늦은 감마저 있다”면서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고객 자산가 고객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무료 발레파킹까지, 서비스 디테일 돋보여

TCW여의도는 여의도 랜드마크 TP타워 19층에 자리한다. 로비를 지나 고객들이 머무는 라운지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전경은 역동적인 성공 그 자체다. 준비한 금융사 빌딩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까지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선을 끄는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실내 곳곳에 전시된 미술 작품이다. 물론 다른 지점들도 그림 몇 점 정도는 걸려 있다. 하지만 TCW여의



즐비한 금융사 빌딩 사이로 한강까지 조망되는 TCW여의도 라운지

도는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마저 주었다. 작품 컬렉션도 예사롭지 않았다. 작품 아래에는 작가 정보부터 가격까지 상세하게 안내돼 있었다.

“자산가 고객님들에게 미술품 구매는 익숙한 일이죠. 그림 한 점을 걸어도 단순 장식이 아닌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미술계에서 각광받는 작가들의 작품 중심으로 준비했는데요, 고객님들 반응이 벌써부터 느껴져 저 역시 놀라고 있습니다.”

김미정 센터장은 TWO CHAIRS 고유의 이미지를 보존하면서도 금융과 문화의 중심인 여의도의 지역적 특색에 발맞춘 서비스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술 경영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준비할 계획이다. TCW여의도 역시 전용 상담 공간, 바이오 인식 대여금고 무료 사용, 시크릿 बैं킹, 자산 진단 서비스 등 TWO CHAIRS에서만 누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 TCW여의도만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서비스가 많았다.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TP타워는 지정주차가 어렵고, 주차하려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한다. 이런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TCW여의도는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19층의 지점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고객과 1층부터 동행한다. 예약 없이 방문한 고객이라도 리셉션을 통해 하이패스로 입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작은 서비스 하나에도 오직 고객

의 편리함을 생각한 TCW여의도다.

### 여의도 특화 최정예 PB 배치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TCW여의도는 맨파워를 자랑한다. 먼저 TCW여의도를 이끄는 김미정 센터장은 과거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 50위’에 선정됐을 만큼 남다른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은행 정통 PB 코스를 모두 패스한 민경진 PB 지점장은 ‘PB 지점장 공모’에서 당당하게 선발된 인재 중 인재다. 뒤늦게 PB에 합류했지만, 우수한 역량으로 ‘점포 선택권’을 획득한 김진희 PB 팀장도 화제의 인물이다. 특히, 어렵게 얻은 점포 선택권을 경쟁이 치열한 여의도에 자진 선택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자신감이 엿보인다. 이 밖에도 연금사업부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이은복 과장, 여의도 지역 전문가를 자처하는 멀티 인재 손유미 과장, 개인 여신 업무 전문가 배미현 과장까지 분야별 인재들이 포진해 있다.

“여의도는 일생을 여의도에서만 거주한 ‘찐’ 부자 고령의 자산가와 스타트업 창업 및 변동성 높은 자산 투자로 부를 이룬 MZ세대가 공존합니다. 부의 세대 이전, 증권투자, IB 업무 등 자산가 고객뿐 아니라 소유하신 회사의 다양한 니즈를 TCW여의도와 동일 층에 자리한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본점까지 우리은행 그룹 네트



TCW여의도 회의실 전경

워킹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은행 정통 PB 엘리트 코스를 모두 밟아온 민경진 PB 지점장은 “인공지능<sup>AI</sup>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인 ‘우리 로보-알파’ 개발에 참여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급변하는 시장에서 투자 승부처는 결국 인간의 감정과 통찰이란 것을 몸소 느꼈다”며 진솔한 자세로 직접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이 자신의 영업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PB 팀장은 TCW여의도 위치에 주목했다.

“TP타워 위치가 기존 당행이 없던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산 운영사들이 자리해 금융의 핵심으로 주목받다 보니, 보다 젊은 자산가 고객님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리투자증권과 시너지 큰 기대

현재 국내 자산관리 시장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공격적으로 나서, 그야말로 전 금융권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우리은행 TCW여의도와 우리투자증권이 동일 층, 동시 개점한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투자증권과 문만 하나 열면 하나가 됩니다. 그만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자산가 고객님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으로 근무한 제 경험을 통해 세무·부동산·자산관리 전문가들과 원 팀으로 맞춤형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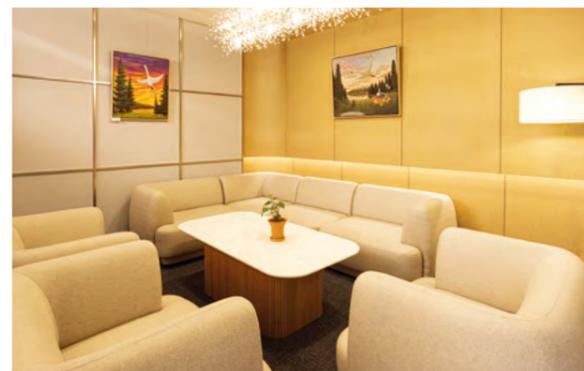
여의도 랜드마크 TP타워 19층에 자리한 TCW여의도, 우리투자증권과 동일 층, 동시 개점으로 긴밀하게 움직인다.

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김미정 센터장은 여의도 지역 기업 임직원을 타깃으로 DC 및 IRP 영업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TCW여의도는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설계, 해외 부동산 취득 등 더욱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매매부터 신고, 세금 납부까지 전 과정을 서포트한다. 우리은행은 ‘TWO CHAIRS’ 브랜드로 아시안뱅크지 선정 ‘2024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sup>PB</sup> 은행’을 수상했다. 아시안뱅크는 1996년 설립된 금융업 컨설팅·리서치 업체로 매년 국가별 최우수 은행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우리은행은 투자 상품·고객 수 증가·혁신 자산관리 솔루션·채널 확대 운영 등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은행의 고도화된 서비스를 이제 TCW여의도에서 직접 경험해보자.



앞자리에서 1:1 원스톱 자산관리가 진행되는 고객 상담실



자산가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응접실. 다양한 목적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 TWO CHAIRS W 여의도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 TP타워 19층

전화 02-6373-2200

**special interview**

**“본점 포트폴리오 전문가가 한 팀... 차원 다른 서비스 디테일”**

TWO CHAIRSW 여의도 김미정 센터장

**서남권을 아우르는 TWO CHAIRSW 여의도를 이끌게 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PB 영업 경쟁이 치열한 여의도에 우리은행 TCW여의도가 개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서남권 최초의 특화 센터이므로 고객님께서 피부로 느끼실 만큼 특화된 1:1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TCW여의도는 우리투자증권과 동일 층에 동일 개점한 만큼 시너지 확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B 지점장과 PB 팀원, WM그룹 자산관리 드림팀을 통해 한 단계 진화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금융기관이 경쟁하고 있는 여의도의 자산관리 랜드마크가 되고자 합니다.

**TWO CHAIRS 자산관리의 강점,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TWO CHAIRS는 대한민국 금융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죠. 이는 브랜드 가치를 넘어 경험과 노하우를 말합니다. 포트폴리오 상품 제안부터 사후 관리까지 영업점 PB와 본점 포트폴리오 전문가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이 같은 직통 라인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우리은행만의 최대 강점입니다. 상품부터 마케팅 리서치, 부동산과 세무, 부의 이전을 앞둔 기업 오너 고객님의 가업 승계 상담까지 라인업이 완벽합니다. 남다른 깊이의 추천 펀드 가이드북과 신탁부 금융시장 ETF 추천 정보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엔 타행과 비슷한 이름의 서비스 같지만 그 안의 디테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고객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PB 상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PB 팀장 시절 모시던 90세 넘은 노부부 고객님이 떠오릅니다. 한국 자산을 모두 매각한 후 자녀분들이 있는 미국으로 이주를 앞두고 계셨는데, 여러 사정으로 오롯이 두 분이 준비를 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6·25 때 북에서 내려오셔서 기술자로 독일과 미국을 왕래하며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해 주민번호를 모르신다는 거였어요. 재산반출 송금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저는 두 분을 모시고 의료보험공단으로, 구청으로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 수소문하다 어르신이 40년 전 재직하셨던 회사를 알아내 무사히 해외 송금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러 가시며 ‘김 팀장이 우리 자식들보다 믿음직스럽네. 정말 고마워’ 인사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PB는 오직 고객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귀찮고, 내 일 아니라고 어려움에 처한 고객님을 모른 척하는 PB는 없어야겠지요? 운용을 잘해 큰 수익을 드린 것만큼 제겐 PB로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CW여의도 센터장님으로서 성공 청사진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 PB 팀장 때, 계장과 대리인 직원 몇 명이 저를 중심으로 스테디를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열정에 감동받아 바로 승낙했죠. 이번에 TCW여의도 센터로 발령받으니, 그때 후배들이 함께 근무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PB 선배님들 가르침을 받던 게 잊고계 같은데, 이제 하나의 센터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으니까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AI가 많은 직업을 대신한다 해도 PB만큼은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최정예 인재로 시작하는 TCW여의도지만, 앞으로 능력 있는 많은 직원과 함께해 최대 인재 그룹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TWO CHAIRSW 여의도 SPECIAL PB PROFILE**

“동일 층, 동시 개점한 TCW여의도와 우리투자증권이 만드는 남다른 서비스 시너지를 경험해보세요.”



**김미정 센터장**

- PB/FA 경력 17년
- PB/FA 우수직원 수상 10회
- 서초금융센터 대표 PB
-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 역임
- TCW 도곡 PB 지점장

“엘리트 코스 PB 출신으로 MGM 영업을 통해 보다 많은 자산가 고객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민경진 PB 지점장**

- PB/FA 경력 12년
- 행원급 PB 드림팀, PB 사관학교 과정 수료
- STAR PB, PCIB영업양성(행내/외) 과정 수료
- 매경 2019 대한민국 대표 자산 컨설턴트 14인 선정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외환전문역, 투자자산운용사 등 금융 자격 다수 보유

“특유의 친화력으로 고객님의 편안한 자산관리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김진희 PB 팀장**

- PB/FA 경력 5년
- 2024년 상반기 연금 전문가 1위
- 3개년 연속 우수 PB/FA 선정
- ※ 점포선택권 부여
- 가산지역 포트폴리오 전문가

# 미·중 관세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른 한국 경제의 앞날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근본적 대비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Writer: 박형중(우리은행 WM솔루션부 Economist) Photo: 프리픽



## 다시 트럼프

2018년 이후 가열된 관세 분쟁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 '휴전' 상태에 들어서는 듯했으나, 미국 대통령에 재선된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조자롱 현 칼 쓰듯' 휘두르며 무역 갈등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중을 축으로 한 무역 갈등을 단순히 일시적인 무역 분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외 정책·기술·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패권 경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는 한국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각각 안보·기술협력 면에서도 뗄 수 없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을 향해 반도체·디스플레이·화학 제품 등을 대량 수출하고, 미국에는 자동차·철강·전자 제품 등을 공급하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 구조를 이어왔다. 만약 이 두 거대 시장이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고착화하면 한국 경제는 복합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

미·중 갈등의 출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본격적으로 표출되면서부터다. 당시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공정무역을 명분 삼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매기는 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트집 잡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통신·반도체·인공지능<sup>AI</sup> 같은 첨단산업에도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의 중국 압박이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진 계기는 5G 통신 장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견제했을 때다. 수출제한, 부품 공급 차단 등 미국이 취한 다층적 조치들은 다른 자유무역 분쟁과 달리 '안보 논리'와 '기술 우위 확보'를 내세운 이례적인 형태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정치 지형도 크게 바뀌었다. 공화민주 할 것 없이 '대중 강경론'이 자리 잡으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sup>중</sup>중국 정책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가 형성됐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초당적 합의를 이룬 형국이 됐기에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어느 정도는 이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쉽게 끝나지 않을 '장기전', 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이전보다 더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중국이 '미국 패권'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설사 일시적으로 관세가 유예되거나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협상에 진전이 있더라도, 근본적 패권 경쟁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두 나라의 갈등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 내부에서는 기업과 산업별로 중국 시장을 활용하려는 이해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대중 강경 기조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아 미국이 통상 정책을 완화하기가 쉽지 않고, 중국 역시 핵심 기술 자립(반도체 육성 등)을 가속화하려는 국가 전략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미 행정부가 수출 통제·사이버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반격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상호 보복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첨단기술 분야의 분업 체계가 크게 변형되거나 양분되는 상황마저 펼쳐질 수 있다. 과거 무역분쟁이 관세율을 몇 퍼센트 인상하느냐 혹은 철강이나 자동차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느냐 같은 문제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주요 첨단 핵심산업인 반도체·배터리·바이오·AI 산업의 지형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 한국 수출 경제에 드리우는 그림자

한국 경제는 트럼프의 통상·무역 정책이 지속되고 미·중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부 충격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에 미치는 가장 가시적인 영향은 수출 둔화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sup>GDP</sup>의 상당 부분이 무역에서 나온다. 특히 중국은 한국 수출액의 20~25%를 흡수하는 최대 시장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등 상당수 주력산업이 중국 수요에 크게 의존해온 것도 사실이다. 만약 중국이 미·중 갈등 때문에 투자·소비가 위축되고 첨단 산업에 대한 해외 부품·장비 조달에 제약을 받는다면, 한국 기업들은 그 파장을 곧바로 맞닥뜨리게 된다. 중국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 공급망 강화와 자급률 제고에 속도를 낸다면, 중간재·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던 한국의 전통적 교역 경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상은 양국 간 무역뿐 아니라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교역 위축이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어지면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수출이 줄고,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앞으로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줄이라"거나 "중국과의 기술협력을 제한하라"고 요구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이 어느 시장에 집중할 것인지, 생산 시설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의미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단기적으로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을 얻는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예컨대 중국 기업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한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채우며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 자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배터리·부품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자급을 이뤄내면, 한국 수출에 부메랑이 될 위험도 크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관세 정책은 한두 번의 타협

“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sup>GDP</sup>의 상당 부분이 무역에서 나온다. 특히 중국은 한국 수출액의 20~25%를 흡수하는 최대 시장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등 상당수 주력산업이 중국 수요에 크게 의존해온 것도 사실이다. 만약 중국이 미·중 갈등 때문에 투자·소비가 위축되고 첨단 산업에 대한 해외 부품·장비 조달에 제약을 받는다면, 한국 기업들은 그 파장을 곧바로 맞닥뜨리게 된다. ”

으로 끝나는 '소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이어질 '가뭄'에 가깝다. 그만큼 국가와 기업이 물류, 투자, 인력, 기술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 경제의 과제는 “생존과 도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 충격을 흡수할 안전판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전략이 절실하다. 첨예한 패권 경쟁에 휘말리는 와중에도, 이를 발판 삼아 혁신과 구조개혁을 가속화한다면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 없이 무작정 상황이 진정되기만 기다린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금 위기의 한복판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박형중  
우리은행 WM솔루션부  
Economist



# 레고와 부동산, 모듈러 건축 시대의 도래

지금까지 부동산이라 하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러 건축이 부동산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모듈러 건축은 무엇이고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살펴본다.

Writer: 이선호(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건설팀 부동산전문가) Photo: 프리픽, 한경DB



## 모듈러 건축의 등장

저출생으로 전체 장난감 시장은 줄어들고 있지만, 키덜트 시장 성장과 더불어 소장용·교육용 수요도 확대되면서 일부 브랜드는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 첫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장난감은 단연 '레고(Lego)'다. 매년 약 200억 개의 레고 브릭이 만들어지고, 초당 약 7개의 레고 세트가 팔린다는 이 장난감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가지고 놀고 수집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라틴어로 레고는 '나는 조립한다'를 의미한다. 레고처럼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Modular Building,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미리 제작한 다음 공사 현장에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이 서서히 시장에 드러나고 있다. 최근 용인 영덕에서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 주택이 준공된 데 이어 전남 구례에서는 국내 최초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DL이앤씨 시공)가 준공되었다. 또 세종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416가구 모듈러 임대주택을 선보인 데 이어 의왕초평지구에서는 20층 짜리 모듈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완공되면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 주택 기록을 갈아 치운다. 국토교통부도 모듈러 건축 방식의 확산을 강조하며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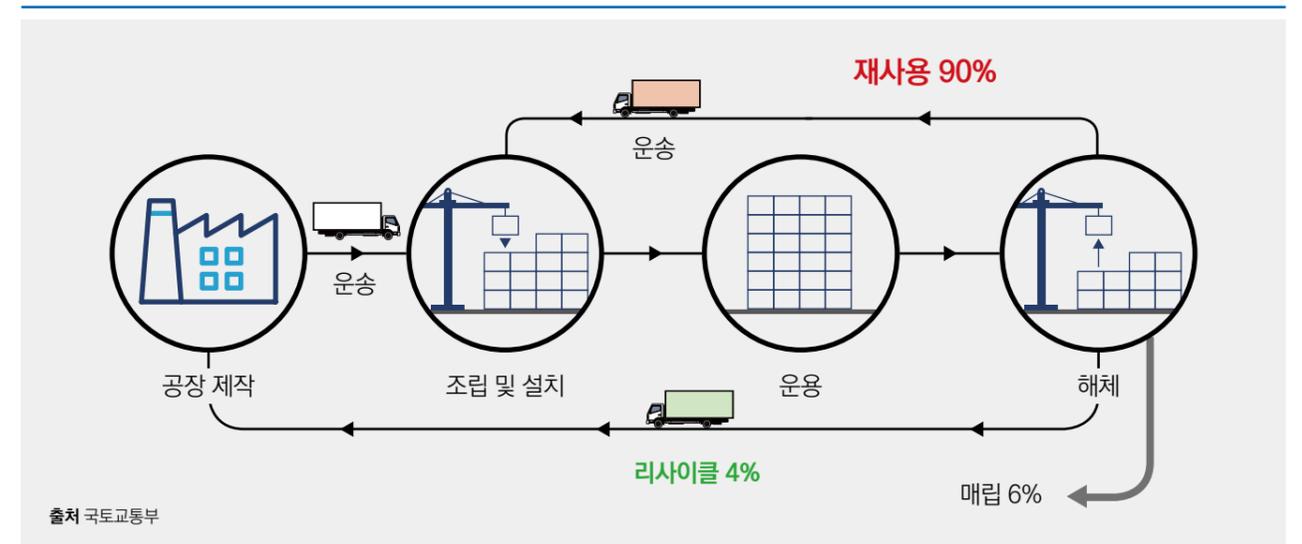
듈러 등 공업화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대형 건설사들도 모듈러 공법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경쟁적으로 모듈러 전문 연구소를 구축하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 모듈러 건축의 특징(L.E.G.O)

**L(less, 절감)**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정화된 생산 시스템을 적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모듈 그대로 공사 현장으로 운반해 간단한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므로 전통적인 습식 건설 방식보다 공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규격화된 모듈의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시 공사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아직은 산업 태동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사업 위주로 진행되지만, 향후 4차산업 및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과 함께 모듈러 건축이 보편화될 경우 건설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E(Eco, 친환경)** 국내 폐기물 발생량 중 건설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다. 모듈러 건축은 모듈을

## 모듈러 건축 프로세스





분리해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소음, 분진을 낮춰 인근 주민의 환경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향후 기후변화 및 산업계의 ESG 대응, 그리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미래 주 소비계층인 MZ세대의 가치 소비 측면에서도 모듈러 건축은 시대적 흐름이 될 수 있다.

**G(Guard, 안전)** 모듈러 공법은 공정의 많은 부분이 안전시설이 완비된 스마트 공장에서 표준화된 생산과정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현장 작업이 최소화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줄 뿐 아니라, 공사 기간도 단축돼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도 감소한다. 최근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시공사로서도 중대 재해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 또 무인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기능 인력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건설산업이 겪는 고질적 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다.

**O(Option, 선택)** 모듈러는 수요자 맞춤형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공법이다. 예를 들어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고객이 원하는 유닛을 마치 레고처럼 선택하고 조립해 배치할 수 있다. 모듈 단위로 제작되기 때문에

건물의 크기와 형태를 쉽게 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거나 제거해 공간을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또 모듈러 유닛을 해체해 새로운 장소로 이동 후 재조립도 가능해 보통의 건축물과는 상이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해야 할 듯하다.

### 모듈러 건축이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모듈러 건축이 뉴노멀이 된다면 건설(개발) 기간의 단축은 부동산 수급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발 사이클을 보면 수요가 강한 상승장에 인허가 및 착공이 늘었다가 준공 시점에 하락장을 만나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 기간이 단축되면 수급 불일치 기간이 짧아지면서 가격 변동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주택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공급 부족 장기화에 따른 가격 급등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공급자(사업 시행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비와 공기가 줄면서 공사원가(인건비, 금융비 등) 절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고, 공급가(분양가)를 낮춰 분양성을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모듈러 건축아래서는 건설업의 제조업화로 시공사의 책임 준공 리스크가

### 모듈러 건축 사례



국내 최초 타운형 모듈러 단독주택 단지(DL이앤씨, 전남 구례)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13층)(현대엔지니어링, 용인 영덕)

줄고 건설 기간도 짧아지면서 개발사업의 미준공 위험도 낮아질 것이다. 또한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모듈 유닛 자체가 하나의 상품화가 된다면, 제조업 기업인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한 것처럼 건설업도 제작, 유통, A/S 등의 밸류 체인화가 가능할 것이다. 수요자(소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듈 유닛을 선택, 조합해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 집합 건물이 아닌 단일 소유 부동산의 경우 재사용·재활용 특성으로 인해 모듈 유닛만의 거래가 가능해 건물 감가가 현저히 줄어들어 따라 부동산 가치가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역 변화에 따른 표준적 이용이 바뀌면 손쉽게 용도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민첩하게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성숙 상권 지역에 주택 유닛으로 공간을 사용하다 상권이 활성화 될 무렵 상가 유닛으로 신속하게 대체하는 것이다. 공사 기간(무수익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주택 유닛과 상가 유닛의 교환 개념으로 본다면 공사비는 해체·설치 관련 비용에 국한된다.

### 부동산투자시 유연한 사고를

지금까지 집이나 상가 등의 건물은 부동산(不動産, 토지나 집처럼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었다. 그러나 모듈러 공법 등 기술혁

신으로 이제 건물은 이동할 수 있는 동산(動産)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건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꿀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건물은 원가법(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해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으로 평가하고, 지으려면 오래 걸리고, 노후화하면 철거 후 폐기물이 되었다. 모듈러 건축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에는 건물도 거래사례비교법(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 산정)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으며, 재사용·재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레고의 듀플로(유아용) 단계지만 엑스퍼트(성인용) 단계에 이르면 이 모든 변화를 피부로 느낄 것이다.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인 기후변화(친환경)와 자원 부족, 기술의 도약 가운데 모듈러 시대는 더 빨리 오지 않을까. ●



이선호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컨설팅팀 부동산전문가

# 자녀와 부동산 거래, 시세보다 낮게 해도 괜찮을까?

다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의 경우 주택수 조정을 위한 부동산 이전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 시 증여와 저가 거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유의 사항과 절세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Writer: 호지영(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원인 시대다.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자산가가 많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증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가 12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증여세 부담은 더 커진다. 이때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또 거래 시 유의할 세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 자녀와의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

먼저 자녀와의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과세관청에서도 전산망을 통해 이런 거래는 일단 증여 거래로 의심하고 살펴보기 때문에 세무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적 거래임을 납세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 주로 문제 삼는 세무 이슈는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렇다면 그 자금의 출처는 정확한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적정 가격이란 어떤 가격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3자와 거래하게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시가보다 낮춰 파격적으로 싸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대로 거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과도하게 낮게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녀에게 이익이 귀속된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래를 '저가 양도'라 하는데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의 기준은

시가의 30% 혹은 3억원 중 낮은 금액이 되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해당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반대로 말하면 시가보다 시가의 30%와 3억원 중 낮은 금액까지는 낮춰서 거래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 가액

구분	수증자	과세 요건	증여재산 가액
저가 양도	양수자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시가-대가)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가령 자녀에게 양도하려는 주택의 시가가 12억원이라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낮은 금액인 3억원까지 낮춰 9억원에 거래를 하더라도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때 만약 9억원보다 더 낮춰 7억원에 거래한다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5억원(12억원-7억원)에서 기준 금액 3억원(시가의 30%와 3억원 중 낮은 금액)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양도 시 세금 문제

세법에서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가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가격으로 정의된다.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규격화한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이때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된다. 다만,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시가로 인정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양도 대상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가 세법상 평가 기간 내에 들어오는 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평가 기간은 거래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로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인정

된다. 예외적으로 거래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른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 문제가 없다면 부동산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취득세에서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기준을 넘어 저가로 거래하게 되면 해당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시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취득세에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낮은 금액이 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취득시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요건과 과세표준**

구분	납부	과세 요건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
저가 취득	취득자	(시가-거래금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시가 인정액 (시가)*

\* 2022년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법인에게만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3년 이후 취득분부터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종전의 사례와 같이 12억원이 시가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7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인 7억원이 아닌 시가인 1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없을까? 부모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이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단, 2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로 양도했을 때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이 적용된다. 이때의 기준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낮은 금액이 되며 이 기준금액을 넘어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요건과 양도가액**

구분	납부	과세 요건	양도가액
저가 취득	양도자	(시가-거래금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시가

자녀와의 저가 거래 시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거래 시 오가는 자금을 대한 출처 문제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관청이 특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데, 이때 자녀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꼭 유의해야 한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반드시 해당 거래가액을 지급해야 하고 거래내역을 금융계좌로 남겨둬야 한다. 또 그 자문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하는데 자녀의 소득 혹은 대출금 등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한 금액인지, 신고되지 않은 부모의 증여 자금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녀와의 저가 거래 시 양도세 vs. 증여세**

이렇게 자녀와 저가 거래를 했다고 하면 증여와 비교했을 때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있을까?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받는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12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겠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약 3억원이 되고 취득세는 약 4,200만원이 되어 자녀가 총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억4,000만원이다.

12억원의 아파트를 9억원으로 낮춰 거래하는 저가 거래의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밖에 없고 위 사례의 경우 약 3,600만원이 된다. 부모의 경우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가정하면 부모와 자녀가 총 부담해야 할 세금은 3,600만원이 전부다.

**1) 증여시**

구분		금액
자녀	증여세	3억원
	취득세	4,200만원
부모		
총 부담세액		3억4,200만원

**2) 저가양도시**

구분		금액
자녀	증여세	-
	취득세	3,600만원
부모	양도소득세	-
총 부담세액		3,600만원

부동산 가액,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에 비해 매매 방식의 거래가 세금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무작정 증여보다 양도를 통한 거래가 절세 측면에서 항상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매매의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은 작지만 거래를 위해서는 실제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자금이 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로 비춰보았을 때 증여는 약 3억4,000만원의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것에 비해 매매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되는 가액인 9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자산가들은 추후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자산

“ 12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겠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약 3억원이 되고 취득세는 약 4,200만원이 되어 자녀가 총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억4,000만원이다. 저가 거래의 경우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밖에 없고 위 사례의 경우 약 3,600만원이 된다. 부모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가정하면 부모와 자녀가 총 부담해야 할 세금은 3,600만원이 전부다. ”

을 미리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전증여 목적으로의 거래였다면 저가 매매의 경우 부모의 자산을 줄이는 효과가 없어진다. 부모 입장에서 부동산 재산은 줄었지만 자녀에게 받은 만큼의 현금 재산이 증가해 상속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증여와 매매는 단순히 부담해야 할 세금의 금액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각 상황에 맞춰 세무 이슈를 검토하고 유불리를 따져 의사 결정해야 한다. ●



호지영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 For Readers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측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완료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2025년 3월 14일(금)~4월 18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 Special Gift



파나소닉 페이스 스티머  
EX-XS01(2명)



WON뱅크 바로가기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WON뱅크(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WON뱅크 ➡ 전체메뉴 [생활 혜택] ➡ TWO CHAIRS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웹진] 배너 상단 구독하기를 신청하시면 매월 첫째주,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TWO CHAIRSPB ➡ TWO CHAIRS 웹진

# Welcome to TWO CHAIRS

## TWO CHAIRS 특화센터

TWO CHAIRS W, TWO CHAIRS Exclusive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 TWO CHAIRS W

<b>청담</b>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6층	T. 02-511-4909(내선 455, 510, 512)
<b>도곡</b>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1층	T. 02-501-1639(내선 513, 530)
<b>부산</b>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우동) 4층	T. 051-741-3625(내선 213~214)
<b>압구정</b>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청담동) 트리니티플레이스빌딩 4층	T. 02-518-6135(내선 311, 312)
<b>여의도</b>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 TP타워 19층	T. 02-6373-2200(내선 212, 213)



TWO CHAIRS W 청담



TWO CHAIRS W 도곡



TWO CHAIRS W 부산



TWO CHAIRS W 압구정

### TWO CHAIRS Exclusive

<b>강남센터</b>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0~314)
<b>본점센터</b>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16(내선 3312, 3367)
<b>시그니처센터</b>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서초동) GT타워 24층	T. 02-562-7964(내선 405, 406)



TCE강남센터



TCE본점센터



TCE시그니처센터

##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안, 은퇴와 노후설계 솔루션 제공, 듀얼케어 자산관리서비스 등
- 세무 자문서비스** 자산의 보유와 매도(증부세, 양도세), 자산이전(상속·증여세), 기업승계 포함 법인 관련 세무자문 등
- 부동산 자문서비스** 부동산 투자정보 분석,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문, 보유 부동산 진단을 통한 케어 특화서비스 제공 등

##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채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여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해외 유약, 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꽃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전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818(2025.01.31~2026.02.28)